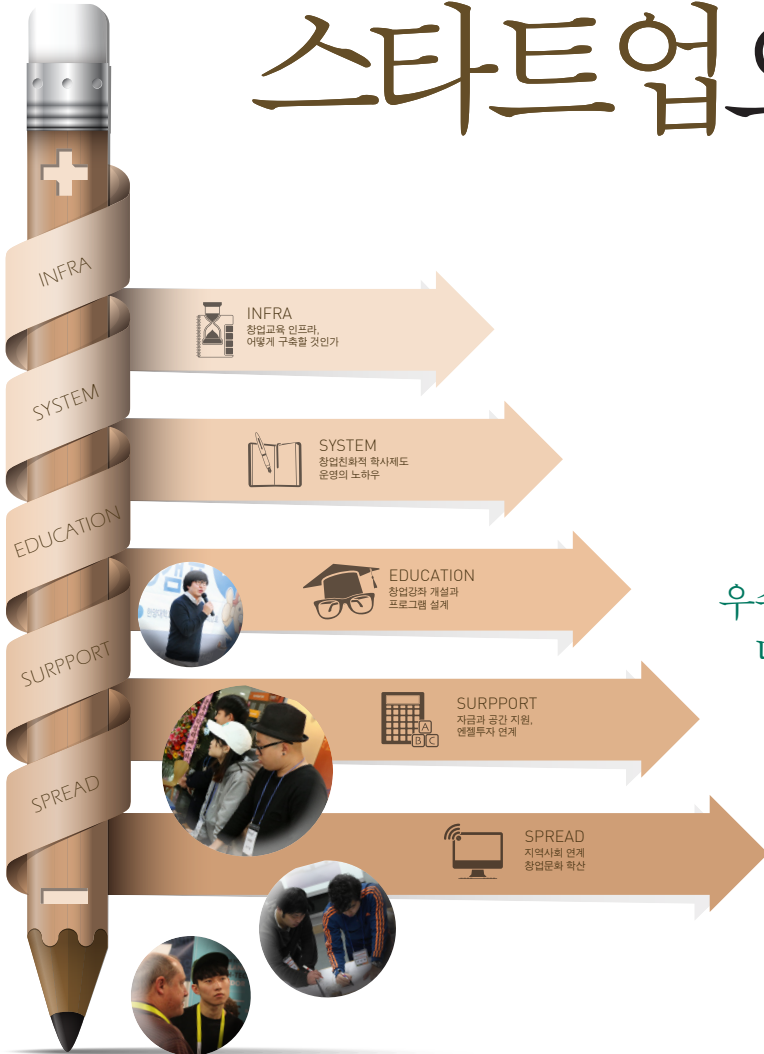




2015
대학 창업교육
우수사례집
★★★★★

대학, 스펙업을 넘어 스타트업으로



창업교육
우수대학을 통한
대학 창업교육
노하우
공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인해 청년 취업난의 해소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교육부는 창조경제에 기반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 역량제고를 위해 사회전반에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내 대학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 대학(LINC) 육성사업의 시작과 함께 56개에 불과하던 대학 창업교육센터는 이제 180개를 넘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하여 대학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던 데에서 벗어나, 많은 대학들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창업교육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업교육은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데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와 대학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비롯한 대학 창업교육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교육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전국 대학에 보급함으로써 대학 창업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2015 대학 창업교육 우수사례집」은 2015 창업교육 우수대학의 창업교육 사례와 더불어 대학 창업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해외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대학의 창업교육 사례를 통하여, 대학 창업교육의 바람이 계속 이어지고 성공사례도 많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5 대학 창업교육 우수사례집」을 통하여 대학 창업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국의 대학 창업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교육부 대학지원관 홍민식

국민대학교

창업문화 활성화 우수사례

01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도전하는 학생 창업’의 요람



기업가정신, 창업교육의 인프라가 되다!

창업지로서 대학의 역할을 생각하다 13 | 창업 역량을 키워가는 대학 15 |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창업교육 재원 투입 16

강의실과 현장의 벽을 허물다

역량에 따른 단계별 창업교육 프로그램 19 | 벤처 1세대가 돕는 창업교육, K-엔턴십 21 |
창조 · 융합형 인재로 성장시키는 특성화 교육 24 | 실천 창업도전 프로그램 26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글로벌 창업요람으로의 도약

오픈플랫폼을 지향하는 K*SAP란? 28 | 국내 최초 글로벌 창업캠프, K-GEB 30

개방과 혁신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다

답이 없는 창업교육, 지역으로의 확장 31 | 우리 곁의 창업가, EIR 프로그램 36 |
교육기관과 연계한 기업가정신의 확산 36

★ **창업교육 현장을 가다 1** _글로벌 창업문화 확산의 현장, K-GEB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하다 42

★ **인터뷰** _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것이 창조 · 융합경제 시대의 진정한 창업교육 44

★ **대학 창업교육에 바란다** _창업강좌의 다각화, 어떻게 모색해야 할까? 47

단국대학교

창업교육 활성화 우수사례

02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창업교육의 선두주자



Beyond Start-up! 창업친화적 인프라 구축

아낌없는 지원으로 발전하는 창업교육 51

창업에 몰입하라

젊은 창업인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57 |
단국대만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57 | DKU 창업몰입형 교육 시스템이란? 60 |
DKU 창업몰입형 교육 시스템 비교과 과정 ① 기업가정신을 키운다 65 |
DKU 창업몰입형 교육 시스템 비교과 과정 ② 도전을 지원한다 69

글로벌 시대 기업가적 창업대학을 꿈꾼다

특성화된 첨단학문 육성으로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74

지역과 함께 뛰어라

지역 창업자들을 위해 심화된 창업교육 77

★ **창업교육 현장을 가다 2** _창업교육을 통해 실천창업으로, 꿈의 기틀을 마련하다 80

★ **인터뷰** _기업가정신 함양으로 달라지는 학생, 창업 · 창직 교육으로 발전하는 대학 82

★ **대학 창업교육에 바란다** _대학 창업교육, 개선할 점은? 85

03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창조적 창업문화를 실현한다



창업교육 인프라,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할 것인가

동아리에서 기업까지, 창업공간 및 기자재 지원 91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윈스톱 창업지원

창업 교육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다 94 |

창업전담교원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다 95

도전을 지원하라

교내 창업문화 조성에 일조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96 | 학내 창업문화를 조성하는

투 트랙형 창업교육의 제도화 99 |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하는 1:1 전담 멘토링 108 |

열정과 재능을 발굴하는 인재 양성 & 지원 프로그램 109

상권을 디자인하라

전주지역적 지역 창업교육 시스템 112 | 넓은 상권, 젊은 대학생과 손 잡다 113 |

지역 산업생태계 속으로 뛰어들다 116

★ 창업교육 현장을 가다 3_우연히 듣게 된 창업강좌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다 118

★ 인터뷰_교실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젊은 아이디어, 젊은 정신 120

★ 대학 창업교육에 바란다_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실효성은? 123

04

창업교육으로 스타트업 성공신화를 만들어간다



다양한 인프라로 구축되는 스타트업 캠퍼스

숨은 스타트업의 진주를 찾아내는 청년 창업 인프라 128 |

보다 확충된 기술창업 인프라 132 | 더욱 활발해진 글로벌 창업지원 및 인재 육성 133

창업 전초기지, 한양대학교

전문성을 극대화한 전담인력 확보 137 | 성과를 내고 있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139

기업가정신을 트레이닝 하는 창업교육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141 | 공대생의 필수 창업강좌, 테크노 경영학 143 |

전문성을 키워주는 산학연계형 창업교육 145

기업가 DNA를 깨우는 다양한 창업 촉진 교육 프로그램

실전체험 트레이닝! 창업 경진대회 150 | 스타트업을 체험하는 캠퍼스와 인턴십 프로그램 152

| 지역사회와 상부상조하는 창업교육 154 |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대주택, 도전숙 155

★ 창업교육 현장을 가다 4_대학 창업교육으로 학생 창업의 기초를 다지다 156

★ 인터뷰_불확실한 시대의 든든한 미래자산, 개인 역량을 키워주는 창업교육 158

★ 대학 창업교육에 바란다_개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창업교육 161

05

해외 창업교육 우수사례

창업교육, 해외 사례에 길을 묻다



에콜 42

세계 최고 IT 스타트업 사관학교를 꿈꾼다 165 | 교재도, 교수도, 수업도 없다 166
IT 스타트업 인재의 산실 167

옥시존 엑셀러레이터

기술 창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엑셀러레이터 169 |
3단계로 이루어진 총 13주간의 프로그램 169 | 제공되는 활동 170

정선

창업 강국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양성소 173 |
선순환을 유도하는 페이-잇-포워드 시스템 174 | 창업자 캠프와 6개월 프로그램 174

스파크

오클랜드 대학교가 만든 창업 사관학교 177 | 교류 플랫폼에서 실전 창업까지 178

발리

창의적인 협업공간, 후붓 181 |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리빗 182 |
리빗의 스타트업 협업공간, 스타트업 깃어웨이 183

들어가기에 앞서

대학 창업교육 성공을 위한 3가지 필수 요건



01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학점교류제) | 전임교원 창업교육 | 산학협력 중점교원 창업교육 | 창업교육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02

창업도전을
위한 환경조성

- 대학 적립금 활용 | 지적재산권 학생 연계 | 대학 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 대학의 다양한 창업 관련 조직의 효율적 운영 | 지지체 네트워크 활용 | 대학 연구실과 학생 아이디어 매칭 | 창업준비실

03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

- 기업가정신 확산 프로그램(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대상 창업교육 콘텐츠와 네트워크 제공) | 교육 기부 프로그램 연계

참고. <대학 창업교육 운영 매뉴얼 2.0>

국민대학교



조직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투자 2014년 11억 원, 2015년 33억 원
학사제도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완전 도입
교과과정 창업개심교양, 전교생 프로그래밍 수강
전공설치 창업전공 설치, 창업대학원
지역 창업지원 성북구/은평구, 상인대학, 지역창업교육

01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도전하는 학생 창업'의 요람



기업가정신, 창업교육의 인프라가 되다



국민대학교는 2014년 대학의 육영이념을 ‘기업가정신’으로 재설정된 뒤 “창업중심대학”으로의 변화를 선포하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전면도입, 교원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전담조직 운영, 대학 보유자산 투자, 교수평가제도 변경을 통해 대학 내 창업 인프라 구축을 실천해 왔다. 창업지원체계 5대 전략을 구축하고 창업교육 전담인력의 선발과 창업정규 교과목 및 창업연계전공 개설, 민간 투자를 연결하는 ‘K-엔틴십’ 교과목 운영, 17개국 학생과 함께하는 7주간의 창업캠프 ‘K-GEB’와 같은 우수 창업강좌를 운영하는 등 학생 창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성북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인근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대학교는 2014년 대학의 육영이념을 ‘기업가정신’으로 재설정된 뒤 전 교무위원과 학과 주임교수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지수 총장이 직접 ‘창업중심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의 변화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하고, 학내외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대학교가 청년창업기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창업기로서 대학의 역할을 생각하다

대학은 학문의 상아탑인 동시에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성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국민대학교는 ‘창업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대학이 생산한 지식을 결합시켜 혁신적인 기업을 탄생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창업중심대학’의 배경에 대해 국민대학교 유지수 총장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창의성에 기반을 둔 혁신과 노력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창의성에 기반을 둔 혁신과 노력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업가를 육성하는 것이 대학의 과제입니다.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업가를 육성하는 것이 대학의 과제”라고 설명하며, “국민대는 ‘창업중심대학’으로 거듭나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가를 대거 배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이 해외 창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대학교는 창업을 대학발전의 차별화 전략으로 설정하고 운영원리를 설계하여 이를 빠르게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창업친화형 혁신을 단행하다

국민대학교는 2014년 1월, 총장직속기구로서 창업지원단을 설치하고 단장을 교무위원으로 보임하였으며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창업교육 및 지원 조직체계를 자발적으로 완비했고, 이와 같은 자발적 운영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창업선도대학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LINC사업에 선정되어 창업교육센터가 설치되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교내 지암 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Innovator's Studio를 설치하여 실무형 창업강좌 운영을 시작하였다. 현재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교내 창업교육과 지원의 핵심 조직으로서 창업 관련 모든 전담교수 및 교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교내 모든 창업교육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수의 실적평가에도 산학협력이 반영되게 되어 있어, 교원의 승진·승급·재임용 시 산학협적만으로도 실적인정이 가능하다. 이처

럼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교수업적 평가제도에서도 창업성과를 전면 반영하는 창업친화형 혁신을 완료하였다.

창업 역량을 키워가는 대학

국민대의 첫 번째 특징은 ‘융합지향’이다. 국민대 안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융합’의 DNA가 녹아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융합대학의 디자인·IT·자동차를 결합한 교육과정, 기계공학과 재활훈련을 결합한 융합기계시스템 등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실전지향’이다. 독특한 프로젝트 중심의 IT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암 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 K-엔틴십과 EIR프로그램과 같이 외부 액셀러레이터와 연계된 프로그램 등 창업의 창업교육 및 보육체계가 학내에 머물지 않고 외부와 끊임없이 교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터전

국민대학교는 보다 효율적인 학생 창업지원을 위해 대학 내 각종 설비 및 장비, 공간, 인적자원의 관리에 있어 창업교육센터와 창업지원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창업 동아리활동, 창업교육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창업 준비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사업모델 피보팅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학생 무료입주), 지암 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 제로원 스튜디오 등과 연계하여 24시간 활용 가능한 창업 준비공

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교원의 창업지원 업적 반영을 보다 강화하여 교내 인적자원의 창업에 대한 기여도를 고취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내 인프라를 이용한 학생 창업기업 성장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과 공동 활동으로 국민대학교 복지관 내 문구점에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최근 졸업한 청년 창업가들이 만든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인 '스타트업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대학은 창업지원이 가능한 기구일 뿐 아니라 상당한 소비자들의 공동체가기 때문에 초기 창업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보유하고 있다. 국민대학교는 이 점에 주목하여 초기 창업기업을 구매에서 우대하고, 초기 창업기업들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실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글로벌 창업 지향'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학생들을 인턴으로 파견하며 실리콘밸리 한인 그룹인 'K-group'의 구성원들을 글로벌 창업 멘토로 위촉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K-GEB(Kookmin Global Entrepreneurship Bootcamp(국민 글로벌 앙트레프레너십 부트캠프))를 통해 16개국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창업교육 재원 투입

국민대학교의 창업 관련 투자금액은 2014년에 11억 원(교비 6억 원, 국고지원금 5억 원), 2015년에는 33억 원(교비 11억 원, 국고지원금 22억 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는 국민대학교의 '창업중심대학'으로의 변화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2016년에는 창업 관련 투자금액을 더욱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대학자금을 기반으로 한 엔젤투자를 실행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의 구성

창업지원단은 창업중심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체제의 중심조직으로서 기존 창업교육센터의 교육 중심 조직의 역할부터 창업교육, 창업보육, 사업화 지원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창업지원 총괄기구이다.

창업자문위원회

창업정책, 투자, 보육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학생 창업자들, 그리고 성공한 동문 창업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된 창업중심대학에 필요한 광범위한 학사제도, 조직 및 시설의 혁신에 대한 지속적 자문을 청취하기 위한 총장직속 기구이다.

성공혁신 기업가센터

산하에 창업교육을 전담하는 창업교육팀을 설치하여 창업학을 연계전공으로 운영하며 서울 북부지역의 초중고생, 대학생, 대학원생, (예비)여성 창업자, 실직 중인 중장년층 등을 교육 단계별, 대상별로 차별화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실시로 창업의욕을 고취하며 지역 창업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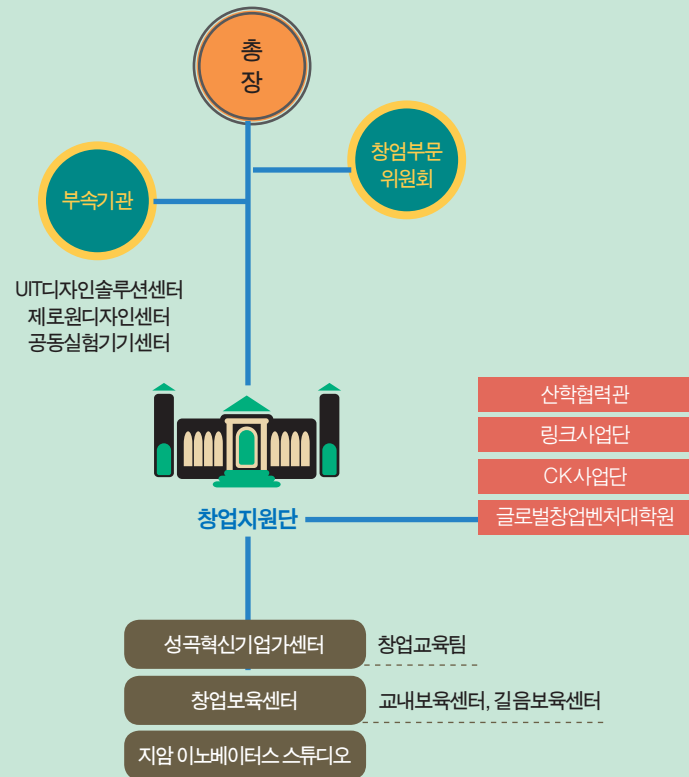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컨설팅, 패키지 애로사항 지원은 물론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 아이템 발굴, 창업자금, 창업기술개발, 시장개발, 사업계획수립, 회사설

립 등 창업단계별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보육지원과 더불어 실제적인 이윤추구 역량 개발에 집중하여 '취업 희망자'가 '창업 희망자'로 되는 창업 마인드 전환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전방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지암 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

국내 최초의 대학 내 프로젝트형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체제로,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창업자 멘토가 소수 정예의 학생들과 1:1로 멘토링하는 혁신적인 창업교육 기관이다.



강의실과 현장의 벽을 허물다



정부의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서 제안한 모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완전 도입하여 학업중단이 없이 창업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완비하였다. 2015년에는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전공을 설치, 창업학 학위를 가진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7년에는 독립학과로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

역량에 따른 단계별 창업교육 프로그램

국민대학교는 '창업 단계와 필요역량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창업 교과목 운영'을 구조화하였다. 창업 전 단계를 대학 교육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독창적인 구조로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창업의 실행과 성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모든 단계를 실행할 수 있는 창업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업은 창업자의 인지적 특성과 태도A: Attitude, 실행기술S: Skill, 그리고 충분한 지식Knowledge 등 이른바 'ASK'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 지

난한 과정이다. 국민대학교는 교과과정을 설계할 때 창업단계뿐 아니라 갖추어야 할 역량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덧붙여, 대학이 창업실행 및 시장진입과 성장단계까지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의실과 현장의 벽을 허물어야만 하므로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외부 엑셀러레이터에 의한 현장교육, 창업실험과 투자의 연계,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현장실습과 같은 혁신적인 현장기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벤처 1세대가 돕는 창업교육, K-엔턴십

국민대학교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대학생을 발굴하여 창업문화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통해 CEO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실무형 창업교과목인 'K-엔턴십'을 운영하고 있다. 엔턴십(Enternship)이란 '기업가(Entrepreneur)'와 '인턴십(Internship)'을 합성한 새로운 개념으로 이론뿐 아니라 실제 창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와 투자유치 노하우 등 경험자 및

more info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



<p>내부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p> <p>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긍정적 인식을 확보하는 등 선행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p>	<p>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규정 등 제도 구축</p> <p>대학별 역량과 자원의 차이 등 현실을 반영한 단계별 제도 구축이 중요하다!</p>
<p>수혜자 인식 개선 및 적극 참여</p> <p>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수혜자인 대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p>	<p>전담조직 설치</p> <p>학사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조정이 가능한 전담기구의 설치 및 기존 전담조직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p>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을 다양한 창업지원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인 '현장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뜻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의 산실로 불리는 스탠퍼드 대학도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Air B&B', 클라우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롭박스 DropBox' 등을 배출한 세계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의 실전적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을 대학 창업교육에 적용하여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방법How to Start a Startup'이라는 정규과목을 편성하였는데, 국민대학교의 'K-엔턴십'은 국내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로 평가받는 '프라이머'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스탠퍼드 대학보다 앞선 사례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국민대학교는 2014년 9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점부여 수업으로 운영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실행하고 있다. 타 대학 학생들의 참여요청도 쇄도하여 강좌를 학외에도 완전히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를 비롯한 다수의 타 대학생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5년에는 대학생들의 개성이 강점으로 부각된 아이디어가 K-엔턴십에 등록되어 주목받았다. '배시시'는 전통 시장과 1인 가구를 결합한 외식 배달 서비스를, 'FurFree'는 애완동물 털을 제거해주는 프리미엄 세탁 서비스를, '타투셰어'는 다양한 타투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 기존 사업과 차별화·특성화를 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K-엔턴십

린 스타트업 방법론에 따른 8단계 커리큘럼

'K-엔턴십'은 이론 중심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린 스타트업'의 8단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창업 과정을 따라가는 실습 중심의 수업이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 시스템 '스타트업-랩startuplab.co.kr'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커리큘럼 외에도 두 번의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멘토(담당교수)의 개별 멘토링으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은 단계별로 온라인 동영상, 문서 형태의 자료를 시청하고 읽으면서 수업이 진행된다. 단계별로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엔턴십 창업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창조 · 융합형 인재로 성장시키는 특성화 교육

자동차와 IT, 디자인을 동시에 가르치는 자동차융합대학, 소프트웨어, 디자인, 경영이 협업하는 창업 실무체험 지암 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 전 예술분야를 융합 교육하는 종합예술대학은 국민대학교의 융합창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국민대는 프로그래밍하는 디자이너, 3D프린터로 부품을 만들어내는 경영학도가 낯설지 않은 대학이 되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진화

모든 재학생은 국민대의 특화된 디자인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전교생 컴퓨터 프로그래밍 의무교육인 '파이썬 Python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회계학을 기본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또한 4학년 학생들은 디자인과 인문사회, 이공계열 학문을 융합한 '융합 특강'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대는 인문사회예술 분야를 비롯한 모든 학생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 수강을 의무화했다. 이는 과거에 모든 대학생에게 철학 과목이 교양필수 과목이었듯 현 시대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코딩이나 웹, 앱에 관한 이해도가 필수라는 생각 때문이다. 1학년은 소프트웨어, 2·3학년은 전공, 4학년은 융합특강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서 적극적인 문제해결력을 기르며 개인의 창업 역량을 높이고 있다.

김봉진(배달의 민족'앱 개발. 우아한형제들 공동대표), 배인식(그레텍 대표), 윤상규(네오위즈 대표) 등 동문 및 이택경(다음카카오 공동창업자), 박관호(위메이드 전 대표) 등 비동문 창업 멘토들을 초빙함으로써 기존 교수 중심의 강의에서 탈피하고, 창업지원과 창업교육을 보다 다각화 · 실전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 융합창업을 위해 공학 분야의 창업연계 캡스톤, 공예 분야의 공예경영, 무용 분야의 무용예술경영 세미나 등 대학의 역량이 특성화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런 시도들을 통해 창업 교육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켓피치 대회

실전 창업도전 프로그램

교내의 기업가정신 확산과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다양한 전공분야, 다양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기획된 창업자 발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전교 수준의 종합적 창업경진대회(실전창업리그, 창업 동아리 경진대회 등)뿐 아니라 전공 분야별로 세분화되거나 (국민* 경영 창업 경진대회, 이공계 창의경진대회, 디자인아이디어 경매, 창의인재 경진대회),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대학원 창업경진대회, 여성 예비 창업자 발굴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내 창업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창업활동이 미진한 외국인 유학생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공별·대상별로 세분화된 아이디어 및 사업모델 발굴대회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위한 흥미 유발형 사업 아이디어 공모

로켓피치 Rocket Pitch 대회는 로켓이 올라가는 순간만큼 짧은 시간(2분 이내) 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표해 자웅을 가리는 경진대회로, 선진 창업국가인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에서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열린다. 국내에서는 국민대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재학생 전체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언론·산업계와 학생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맺고 만든 공동활동이다. 이에 관해 김도현 국민대 창업지원단장은 “미래를 짚어주고 나갈 대학생에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로켓피치 대회의 취지”라고 말한 바 있다.

2014년 대회에는 외식창업 등을 미리 실천처럼 해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 층간소음을 자동으로 알리는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창업 아이템부터 다기능 융합 ‘효자손’, 택시 승객 안전보호 장치 등 생활에 당장 접목할 수 있는 발명품까지 등장했다. 이외에 청소년 진로 및 창직 교육 플랫폼, 대학생 국제교육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중고생 과학실험 체험 서비스 등 번뜩이는 교육용 창업 아이디어도 발표됐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짚어주고 나갈 대학생에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로켓피치 대회의 취지입니다.
— 김도현 국민대 창업지원단장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글로벌 창업요람으로의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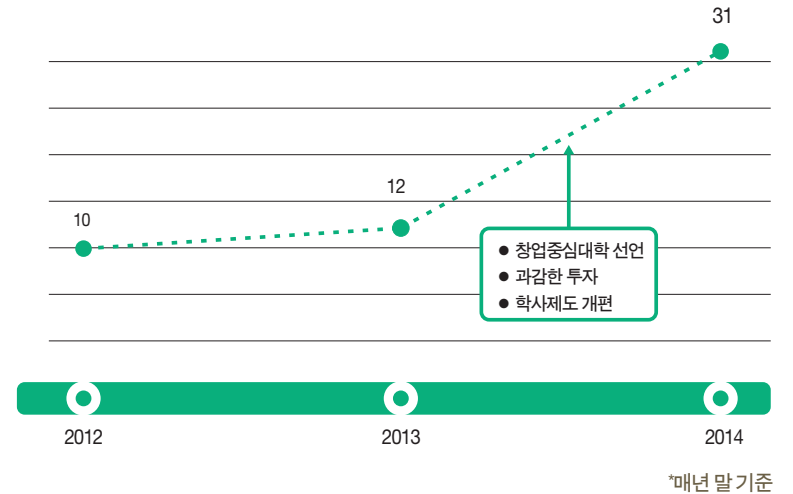
국민대학교는 창업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국민* 창업 및 가속성장 플랫폼(K*-SAP; Kookmin Startup and Accelerated growth Platform)'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및 전 세계 교류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창업가 양성을 목표로 K-GEB(Kookmin Global Entrepreneurship Bootcamp)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오픈플랫폼을 지향하는 K*-SAP란?

K*-SAP은 기업가정신의 기초를 배우는 창업교과목을 시작으로 전 과정에 걸쳐 5개의 단계별 지원사업, 43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단계에 따라 실행해보는 플랫폼이다.

유기적인 연결성을 극대화한 예비 학생 창업자 일관지원 체계로 적시에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가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선택하지 않아도 적절한

국민대학교 학생 창업자 수



지원이 이루어진다. 민간 및 공공 창업지원 플랫폼과의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덕분에 '대학에 갇힌' 지원을 탈피하여 외부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과 자연스럽게 상호결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학내의 학생 창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성과

K*-SAP은 창업 교과목을 함께 수강한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창업한 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아 매출을 일으키고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거나 다시 투자받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제 창업에 가까워지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최초 글로벌 창업캠프, K-GEB

2015년 6월 29일부터 7주간 진행된 K-GEB 프로그램은 마케팅, 투자, 발표 등 창업과 각 단계별 성장에 필요한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학생 비즈니스 모델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글로벌 창업캠프이다. 300여 명의 지원 경쟁을 뚫고 선발된 16개국 32명의 학생이 창업 아이디어와 결과를 공유했다.

인종, 국적,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5~6명이 팀을 구성해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시제품 제작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전기를 마련할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7주에 걸친 글로벌 창업 아이템의 다양한 경연

첫 1~2주는 전반적인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창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후 현장에서 고객 인터뷰 및 해당 산업군의 멘토링을 받고, 각 팀들은 대표 아이디어를 최소 기능 제품으로 구현했다.

LED솔루션을 통해 스스로 매번 다른 주얼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바나나 나무로 ‘탄소 제로’를 실현하는 솔루션 등 창의적인 내용이 가득했다. 친환경 페인트 제품의 사업화 계획, 비디오 공유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레스토랑 메뉴를 만들어낸 아이디어 등,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아우르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들이 발표되었다.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2주간의 데모 데이를 마지막 일정으로 창업캠프는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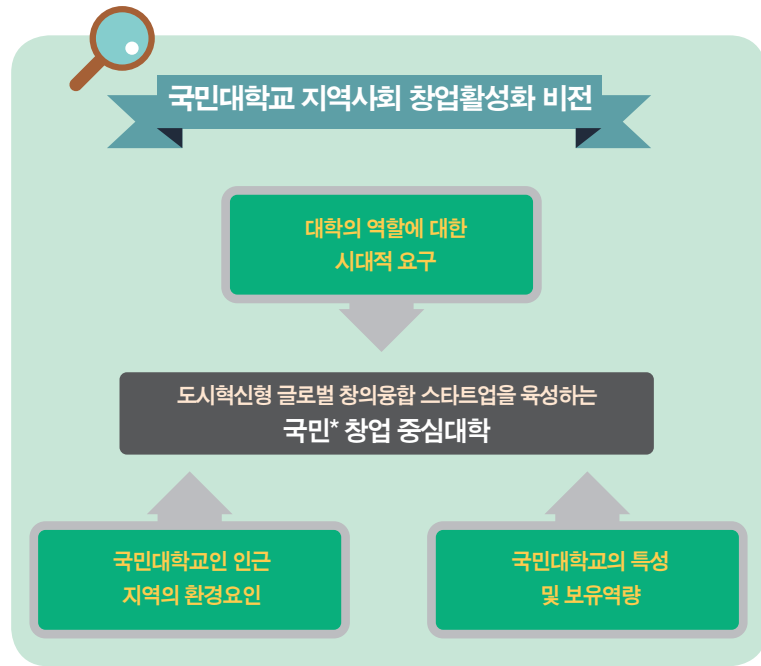
개방과 혁신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다



국민대학교는 성북구, 은평구 지역민과 함께 오래전부터 호흡해온 지역밀착형 대학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축제지원, 대학 내 문화예술 공연의 완전개방, 지역주민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 등을 펼쳐왔고, 최근에는 지역민들에 대한 창업콜센터 운영, 창업특강, 지역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 등 활발한 창업지원활동을 실행하면서 그 어떤 대학보다 지역의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경제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답이 없는 창업교육, 지역으로의 확장

국민대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의 모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완전 개방하여, 학생과 차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업교육센터와 창업지원단은 학교 담 밖에 위치하여 학생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문을 열면 바로 창업교육과 지원에 대한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으로서 국민대학교의 지역 창업지원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이는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은 학생과 지역주민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점과, 학점인정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의 참여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미 2014년부터 국민* 창업 콜센터(02-9105-9111)를 운영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창업에 대한 모든 질의에 대응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창업콜센터에 접수된 지역주민의 문의사항은 200여 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300여 명에 달한다. 예산 대부분은 대학 자체예산으로 집행되었다.

기존 창업지원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실행되어 지역 창업교육, 지역 소상공인 지원, 지역 교육기관 지원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기준 연 인원 800여 명이 이와 같은 지역민 지원 활동의 혜택을 받았다.

소규모 자영업이 중심을 이루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대학교가 보유한 물적 인프라(3D 프린팅 장비 등)와 인적 인프라(정보기술지식을 지닌 교수 및 학생)를 소상공인 생산성 혁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기반 마케팅 교육, 자금지원 교육, 1:1 멘토링 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에는 3D프린터, SNS 활용교육, 글로벌 셀러 창업과정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소기업 ICT, 마케팅, 3D프린팅, 디자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 인프라 제공, 멘토링 등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하반기~2016년 초에는 준비 없이 창업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자금으로 팝업형 점포를 마련하고, 집중적인 현장형 창업캠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적인 점포형 창업 성공 사례인 '청년장사꾼'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은평구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국민대는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은평구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초가 되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 창업자 발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은평구민의 창업 역량 강화,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확산, 예비 창업자 발굴을 목표로 지역주민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에 대한 후호적 사회문화 형성을 위해 창업 가능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경진대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업화 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 창업특강을 실시하였다.

향후 e-비즈니스 창업환경 분석, 스마트워크 환경 분석 및 활용 전략, 블로그 및 카페를 활용한 SNS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 전략 등 최신 마케팅 트렌드 및 성공 사례, 실무 중심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온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디자인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 북부지역 (예비) 창업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ICT 지역 창업기술 지원

성북나눔테크 협동조합과 연계,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의 인

국민대, 성북구청과 함께 스타트업 아카데미 실시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김도현 교수)은 성북구청과 함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오는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각자에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타이밍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략)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장 김도현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자를 교육·훈련시켜 교육대상자들이 실제 창업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요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을 적극 지원해 실질적 창업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2015/09/15

프라를 활용하여 서울 북부지역 ICT 창업자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우선 성북구 관내에서 ICT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직무 발명을 유도하며, 성북나눔테크 협동조합 전문가의 산업현장 경험 멘토링과 국민대학교 전문교수진을 활용한 기술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지식 및 정보의 활용과 융합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 및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ICT 신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특허 출원 과정을 거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조적 벤처 창업을 촉진해 갈 것이다.

지역 팝업스토어 설립 및 공유

예비 창업자의 경우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창업 이전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실패할 경우 투입된 자금 회수가 어려워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대는 상인대학, 시니어창업스쿨, 소호창업과정 등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 인근 지역의 유휴공간에 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청년장사꾼 김윤규 대표와 협력하여 팝업스토어를 구축·개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아이템의 오프라인 시제품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 소상공인 창업 아이템을 MVP 개념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여 완제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려 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운영 경험을 전수받고, 창업 이후에도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공 창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창업영재를 육성하는 기반 교육에 일조한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도 '진로와 직업' 및 비즈쿨을 통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의 경우 기술교육과 연계한 창업교육을 확산하고 있으며, 창업 영재 및 새싹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창의발명반을 운영하는 등 고등학생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이 활성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창업교육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입시 중심 교육 현실로 인해 창업에 대해 생각하는 학생의 수도, 실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적다.

이에 국민대는 기업가정신을 지역 청소년층에게 확산하고자 서울 북부지역의 고등학교와 연계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꿈과 끼가 많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성북구 소재의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삼각산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동아리 지원활동을 통해 학생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발명동아리 및 창업 동아리 교류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창업교육을 통해 청소년 때부터 창업이 모험이 아닌 도전이라는 인식 개선과 더불어 기업가정신의 기초 개념을 친숙하게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 팀과 함께 서울 북부지역의 고등학교에 있는 창업 및 발명동아리를 탐색하며 고등학교 진로탐색 교육과 연계하고, 협약을 맺은 고등학교의 동아리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창의·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눈높이에 맞는 현장 창업교육을 위해 이 과정에서 이전에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국민대학교의 창업·발명동아



지역 청소년 창업교육 협약식

리와 고등학교의 동아리를 자매결연하여 대학생이 고등학생을 선배의 입장에서 멘토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실례로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창의창업반과 국민대학교 창업 동아리 '창공Creative Factory'이 자매결연하여 기본적인 멘토링 및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EIR 프로그램, 창업교육 특강, 창업보육센터 입주 학생기업 현장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지도교사와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다.

삼각산고등학교의 경우 소외된 90%를 위한 발명반과 I.MIdea Machine이 자매결연하여 대학생-고등학생 세미나 및 멘토링과 더불어 I.M이 보유한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과 EIR 프로그램, 적정기술 자문, 지암 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자문 등을 지도교사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CA시간을 정기 창업교육 시간으로 활용하여 기업가정신의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화 EIR 자문, 사업자등

록 등을 포함한 비교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학 교기업 설립을 위한 자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more info

국민대학교 사례로 보는 지역 창업문화 확산 노하우



01 개방
지역민 대상 모든 창업지원 프로그램 완전 개방

01



02 커뮤니케이션
지역 수요와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프로그램,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성화

02



03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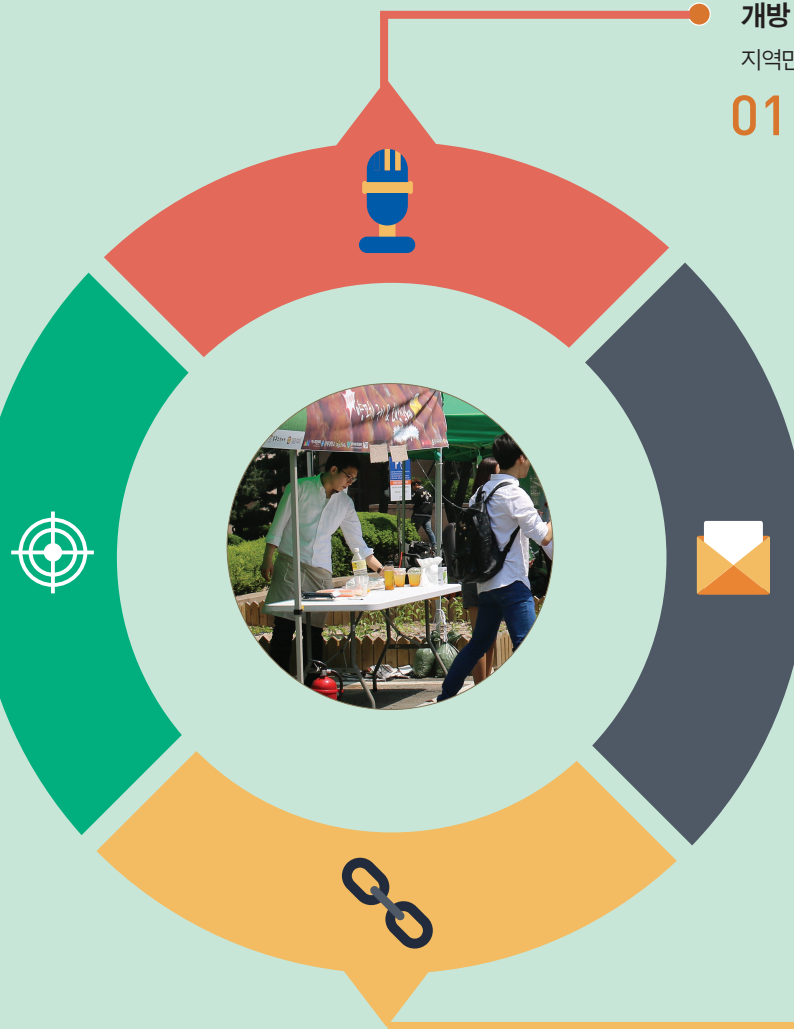
초등학생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연계교육, 지역 초등학교 연합을 통한 기업가정신 캠프, 지역 청소년 창업교육



04 지역 창업민과의 협업

정릉지역 시장 혁신활동 성공사례, <정릉신시장 사업> 등

04



창업교육 현장을 가다 1

글로벌 창업문화 확산의 현장, K-GEB를 통해 한뼘 더 성장하다

이상원 씨(파이낸스 보험경영학과 3학년)는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K-GEB에 지원, 2015년 제1회 K-GEB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평소 창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직접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두려움이 앞섰던 그에게 K-GEB는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팀 빌딩, 비즈니스 모델 구상, 사업 계획서 작성과 발표 등 창업의 초기 프로세스를 몸으로 부딪치며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의 아이디어를 발표한 후 투표를 거쳐 그중 몇 가지 아이디어를 선별했습니다. 선별된 아이디어 제안자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는데 저희 팀은 남미 출신 2명, 인도 출신 1명, 한국인 2명(본인 포함) 등 5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문화도 전공도 다른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 의식이 생겼습니다. 흔히 국내에 한정하여 사업성을 생각하기 쉬운데,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어울리며 의외의 아이디어를 접하거나 사업 전망 등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K-GEB 프로그램은 7주간 전일제로 진행되었다. 5주간 오전에는 주로 이론적인 지식을 배웠고, 오후에는 현장 경험, 멘토링 등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마지막 2주 동안은 데모데이 준비에 매달렸다.



“창업 초기 프로세스를 압축된 시간 동안 몸으로 경험해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실재화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끌지 등에 대해 체험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선배창업자들과 엔젤투자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쉽게 얻기 힘든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상원 씨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면 말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과 고난을 각오하고라도 도전해보는 것은 천지차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7주간의 프로그램이 저에게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불어넣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전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하여 자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것이 창조·융합경제 시대의 진정한 창업교육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 김도현 단장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 사무실이 위치한 휘랑관은 도로와 면해있다. 창업지원단 사무실의 문 또한 외부와 통해있어 굳이 학교 정문을 통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다.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언제나 열린 공간을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처럼 대학 및 지역 창업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는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을 방문하여 창업지원단 김도현 단장에게 창업교육 현황과 비전에 관해 물었다.

창업중심대학을 선포한 이후, 창업교육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가정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실전창업만을 뜻하고,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곧장 창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가정신이란 보다 넓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도전정신 등이 포함된 것이지요. 이 같은 기업가정신을 우리 학교의 육영이념으로 재설정하고 창업중심대학으로의 변화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개인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강좌들을 많이 늘리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창업이 경력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창업도 허용하기 시작하여, 산학과의 거리를 좁히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 학생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수강해야 하는 등의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사이트에는 융합적 사고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공대생은 공대생과만, 경영대생은 경영대생과만 어울리고 일해서는 통합적인 사고력, 통찰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다른 전공자들과 교류하며 일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사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를 미리 경험해보도록 하고, 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확장적 시각을 갖춘 인재야말로 융합형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K-엔턴십은 물론이고,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타 대학 및 지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없었는지요?

—국민대학교는 ‘민족의 대학’, ‘국민의 대학’이라는 건학이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개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국민대가 위치한 지역, 성북구와 은평구는 창업에 있어서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현재 수도권 창업지역이라고 하면 관교와 강남 쪽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기업 지원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두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서울 북부권에 있는 초기 창업(준비)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일정 정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에 관해 크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운영을 해보면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일궈낸 사업이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소상공인 지원과 혁신 스타트업을 무 자르듯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성취도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자부합니다. 은평구와 성북구에는 소규모 영세상인이 대부분인데, 실상 제대로 된 창업교육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입지 등을 고민한 적은 있어도, 사업 모델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런 면에서도 창업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대학 창업교육에 바란다

창업강좌의 다각화, 어떻게 모색해야 할까?

대학 정규 교과목으로서 학생들의 요구, 기업의 필요에 100퍼센트 부합하는 것이 나오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강좌의 실효성을 높이며 학생들의 흥미도 만족시킬 방법은 없을까? 대학 창업교육의 현실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관하여 선배 창업자 및 재학생 5인에게 들어보았다.

“CEO는 개발자가 아니라 경영자입니다. 제대로 경영능력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다소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재를 모아서 앙상블을 만들 수 있는 인적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매우 한정되어 있죠. 대학 창업교육 과정에서 그와 관련해 간접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절감합니다.”

김찬호 SNS에너지 대표의 말이다. 한편 김진용 푸른밤 대표는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사업 아이템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험의 전수와 유지 발전이 요구됩니다. 대학교육을 통해 같은 실패를 겪어본 선배들의 경험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창업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 2016 대학 창업교육 간담회 중에서

- 김찬호 대표는 ... SNS에너지 대표이사. 2009년 학업을 중단하고 창업하였다. 폐수 열회수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직 창업지원단, 창조창업·창업교육센터,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투자 2014년 10억2천억 원

학사제도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완전 도입

교과과정 창업교육 의무화, 창업몰입형 교육 시스템

전공설치 창업융복합연계 전공강좌 운영

지역 창업지원 충남지역, 지역 창업교육


02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창업교육의 선두주자



최근 단국대의 가장 큰 화두는 창업이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개척하고자 하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 까지도 단국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단국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학문 탐구와 지적 호기심 충족이라는 지식의 상아탑 역할을 넘어 학생들의 창의력을 확장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학생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창업을 선도하는 기업가적 창업대학'을 목표로 학생 창업을 위한 우수한 창업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2년간 70억 원을 투입하며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창업강좌 수를 확대하여 기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전용 공간을 확대하여 왔으며, A-Z까지 단계별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교육의 체계화 구축했다. 또한 방학 기간을 활용한 창업사관학교 운영으로 심화된 창업교육을 진행하였다. 각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의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Beyond Start-up! 창업친화적 인프라 구축



단국대학교는 지난 3년간 창업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증액을 해 온 결과, 현재 순수 교비투자 부분에서 전체 대학 1위에 꼽힌다. 이처럼 전폭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창업펀드 조성, 인적 지원 및 공간 지원을 통해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국대학교의 창업 관련 부서로는 창업지원단, LINC사업단 창조창업·창직교육센터,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창업지원본부에서 각 부서별 업무분담을 통해 통합형 일원화 창업지원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아낌없는 지원으로 발전하는 창업교육

단국대학교는 2015년 연간 창업지원금이 가장 많았던 대학으로 천안 캠퍼스가 8억6,914만 원을 투자했다. 2012년 대학공시(2011년 실적)는 9,700만 원이었으나 2년 만에 10배로 창업예산을 증액하여 2014년에는 10억2천만 원(대학공시)으로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순수 교비 투자 부분에서는 7억 원으로 전체 대학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전폭적



창업 카페

인 지원의 결과 2012년 7종에 불과하던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2014년에는 24종으로 다양화되었다.

2011년부터는 엠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투자회사와 업무 협약으로 10억 원의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지원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창업공간지원 또한 크게 늘려 2012년 100㎡에서 2013년 1,035㎡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교내 공동기기센터의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보육 육성을 위한 창업 보육공간 19개를 지원하여 14개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을 판매하는 (주)퓨어스킨, 식중독균에 대한 동정키트를 개발하는 ATP LAB(주), 인체공학 적 제품을 설계 및 개발하는 (주)스마트이지, 브랜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윙토리, 전통 유기농 보이차 등을 다루는 (주)베어스 등의 기업들이 단국대학교 창업보육공간에서 꿈을 펼치고 있다.



창업 동아리 공간 지원

창업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단국대학교는 44명의 산업체 전문가를 채용, 창업 기초에서 심화과정까지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전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두고 있다. 전국 최다수의 전문 교수진의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을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하기 위해 기존 학과 교수와 함께 교육하는 '팀티칭' 방식을 도입했으며 3·4학년 대상으로는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강좌와 창업 동아리별 전담 산학협력교수 배치로 학생 창업 활성화 지도를 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의 표준화와 연속성을 위한 창업 교재 개발 등으로 창업교육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창업교육 확산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보유한 물적·재정적·인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창업전담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창업보육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실제로 산학협력중점교수 5명이 창업지도사(1, 2급)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또한 교내외의 창업 관련 전문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유망창업기업 CEO로 구성된 창업지식나눔단을 구성하여 상시 창업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삼성디지털 솔루션 대표, (주)한국보싸드 대표 등 25명의 CEO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천안지부장, 충남테크노파크 전문 위원 등 10명의 창업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지원조직	주요 업무
창업지원단	죽전캠퍼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총괄
창업·창직교육센터	천안캠퍼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총괄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학생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 시스템 제공

창업전문인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도사 10명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13명 ● 기술거래사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12명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6명 ● 기술경영사 3명

구분	연도	계	교수	직원
창업인력 현황	2013년	20명	12명	8명
	2014년	33명	19명	14명
	2015년	46명	29명	17명



창업에 몰입하라



단국대는 창업교육 융·복합 연계 전공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교육 중장기 프로그램을 갖추고 창업교육을 단계별로 특성화하고, 다산창업사관학교와 창업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였다.

창조다산 창업·창업 교육센터의 비전

비전 ● 창조 DASAN형 기업가정신 육성 및 창업지원의 산실

목표 ● 창업문화 활성화, 청년기업가 양성, 특화된 창업 시스템 구축

추진 전략	창업 몰입형 교육 시스템	창업친화적 환경 조성	창업 역량 극대화
전략 과제	· 창업교육 중장기 프로그램 개발 · 창업교육 단계별 특성화 · DASAN창업사관학교 운영 · 창업 동아리 지원, 캠프 운영	· 창조다산 창업지식나눔전 · 창업/창업 CEO포럼 운영 · 국내외 창업기관과 교류 · 창업지원단, 보육센터 연계	· e-창의적 아이디어 상설화 · 글로벌 창업행사 정례화 · 창업교육 전문가 포럼 개최 · 창업전담교수제 정례화
핵심 가치	기업가정신 발견	창업 지식과 기술 향상	특화된 창업지원 활동

젊은 창업인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단국대학교는 학생 창업 과정에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진학·취업 중심의 진로선택에 머물지 않고 기업가정신으로 뭉친 젊은 인재들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해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학점교류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창업현장실습을 대체학점으로 인정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2년(4학기)간의 창업휴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마음껏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복무자에게도 창업교육 사이버강좌를 제공하며 경인 지역 30개 대학에서 창업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창업학점교류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창업특기생 선발제도를 활성화해서 2014년에는 4명, 2015년에는 10명, 2016년에는 20명을 선발하여 확대 시행 중이다.

단국대만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국대학교는 창업교육을 의무화하고 창업융복합 연계전공을 개설하여 융복합 교육을 확대중이다. 특히 분야, 예술 분야,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등에서 융·복합 연계전공을 만들어 '지식재산학사', '문화예술창업학사', '글로벌 비즈니스 창업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정보·지식재산대학원(지식재산사업화학과, 지식재산벤처경영학과)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창업교육 초청 특강

창업교육 의무화

2014년부터 단국대학교의 모든 신입생은 의무적으로 교양필수과정 창업·창직 영역을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의 창업교육 수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전공별 대학별 유망분야 특성을 반영한 창업 강좌 운영을 위해 학과별로 운영하는 전공 세미나를 창업 세미나로 운영하고 있다.

창업융복합 연계전공 강좌 운영

교양과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다 계열의 교양과목(12학점)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역별 및 자유 교양과목을 확대 개편하여 창업 관련 다음의 8개 교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이외에도 20개의 창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No	영역	교과목명	주요내용
1	생명자원창업학	생명자원 기술 트렌드 연구	생명자원 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



No	영역	교과목명	주요내용
2	생명자원창업학	생명자원 창업 설계 및 실습	바이오퉴크를 이용한 벤처농업을 창업하도록 학습
3	정보기술 융합창업학	공학기술 창업과 기술 개발 실습	공학기술엔지니어로서 기술창업을 학습
4	메디바이오 창업학연계	메디바이오기술Trend 연구 및 실습	창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실질적 적용 학습
5	메디바이오 창업학연계	바이오벤처 창업론 및 실험	바이오퉴크를 이용한 벤처창업의 기초지식 학습
6	생명자원창업학	생명자원 기술 창업과 기술 개발 실습	생명자원의 메디바이오를 이용한 창업교육
7	메디바이오 창업학연계	창업 마케팅 세미나	창업 성공전략을 세미나 형식으로 토론
8	정보기술융합창업학	산업 기술 트렌드 연구	블루오션 산업에 대해 학습

DKU 창업몰입형 교육 시스템이란?

단국대학교는 기업가정신과 창업강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요조사 및 전국 창업교육 포럼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미국 창업교육협회의 창업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창업화된 창업교육 시스템인 'DKU 창업몰입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more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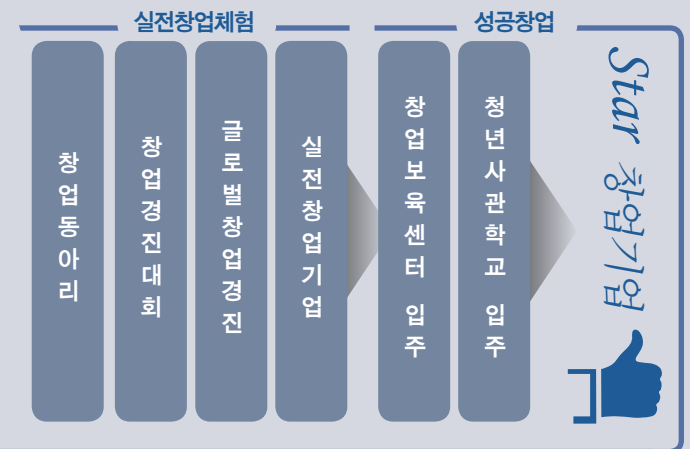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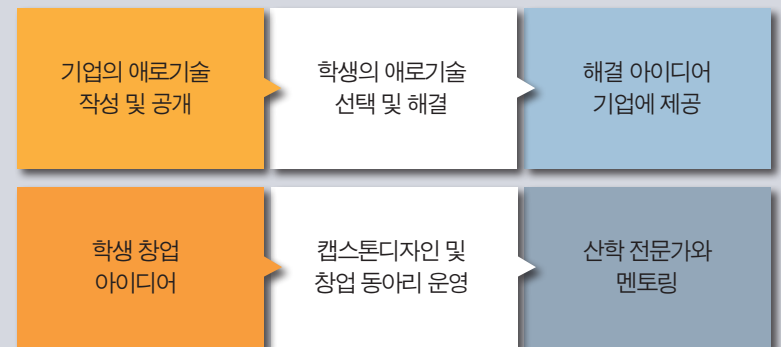
단국대학교의 창업교육 중장기 프로그램 노하우



보다 세분화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창업몰입형 교육 시스템은 단기 프로그램인 2트랙(확산형과 몰입형)과 중장기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세분화된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창업교육을 꾀하고 있다.

2트랙은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 프로그램으로, 교양창업교육 수강



후 연계전공과 창업전공이 연결되는 수준별·전공별 과정이다. 지속 성장형 창업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확산형 트랙은 메디바이오 분야, 정보기술 분야, 생명자원 분야, 몽골학과 등 4개 분야를 주축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자원과학대학, 사회경제열 대학, 인문대학 등 3개 대학의 주도로 창업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비롯한 교육이 주를 이룬다.

몰입형 트랙에서는 실제 창업을 준비하거나 실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실무를 체험하는 모의 창업과 창업 캠프, 창업사관학교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2015년도에는 몰입형 트랙을 통해 26개 창업 동아리 중 7곳이 실제 창업에 성공하였다.

창업교육 중장기 프로그램은 교양 창업강좌와 창업연계강좌, 창업강좌의 3개 분야로 나뉘며 수준별·전공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2014년 교양 창업강좌는 20강좌였으며(2013년 13강좌), 창업

단국대 천안캠퍼스 산학EXPO賞 휩쓸어

단국대 천안캠퍼스가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중심대학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생들의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함양 등의 분야에서 일관 성과를 창출하며 창조경제 실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8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따르면 이 대학 산학협력 사업단인 '창조다산 링크사업단' 소속 학생들이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2015년 산학협력 EXPO'에 참가해 각종 상을 휩쓸었다. 기술협력 부문 대상 선정된 것을 비롯, 창업교육 및 창업 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단국대는 지난해 행사에서도 '인력양성 부문 교육부 장관상'과 '창업유공자 교육부 장관상'을 받는 등 2관왕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문화일보〉 2015/11/18

연계/전공 창업강좌는 33강좌(2013년 15강좌)였으며 수강인원은 1,455명(2013년 1,039명)으로 전년 대비 140%의 높은 성장을 나타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창조적 산학협력 프로그램

단국대학교는 가족회사의 상시교유를 통해 기업과 대학 간의 윈윈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기업은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우수 인력을 채용하며, 공동창업 및 신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학생은 창업연계, 아이디어 상품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단국 아이디어 마켓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장기적 프로그램명		추진시기	주요 추진 성과
확산형	교양창업 강좌	창업·창직 교양영역 지정 2014년 1~2학기	교양 일반계열에 창업·창직 융합영역 지정으로 창업강좌 이수 의무화하여 20개 강좌 640명 수강
	창업연계 강좌	(참여대학) 창업연계전공 2014년 1~2학기	메디바이오 창업학, 생명자원 창업학, 정보기술융합창업학, 몽골바이오문화 유산 취업 및 창업전공 등 4개 전공에 211명 수강
	전공창업 강좌	(비참여대학) 전공창업강좌 2014년 1~2학기	링크사업 비참여대학 전공학과에 창업 강좌 17개 개설하여 594명 수강
몰입형	성과 창출 중심의 몰입형 교육 특별 프로그램 정착	2014년 12월 22일~31일, 2015년 1월 5일~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캠프 운영 : 동계 및 하계 2회 135명 참가 · DASAN창업사관학교 개설 운영 : 1회 5일 24명 참가 · 글로벌 해외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2회 62명 · 유망 창업기업 탐방 : (주)SAC 등 3개 기업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체와의 공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산학협력 친화적 교육 환경과 창의적 프로그램을 갖춘 '세계 최고의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구축,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취업률 제고 및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캡스톤디자인의 기업참여를 확대하고 창업·창직 영역별 교양 과목으로 캡스톤디자인을 개설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캡스톤디자인이나 창업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담당 교수들과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된 아이디어를 가족회사와 지역기업에 소개한다.

정규교과를 통해 사업자등록, 매출 발생까지

2014년 '재미있는 실전 창업' 강좌를 통하여 기업가정신, 사업 아이템 타당성 분석, 창업절차, 마케팅 활동 등 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교육하였다. 그 결과 4개의 팀이 총 2,653,690원의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창업 동아리 스타트업 캠프

DKU 창업몰입형 교육 시스템 비교과 과정 ① 기업가정신을 키운다

창업강좌, 창업 동아리 지원, 창업캠프, 창업토크쇼, 창업기업탐방, 다산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스타트업 연구 등 다양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모의 창업에서 실제 창업까지, 창업 동아리의 창업 역량 강화

DASAN 창업 동아리 육성시스템으로 학생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창업교육은 물론, 창업 동아리를 발굴, 모의 창업에서 실제 창업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인적·물적·행정적 지원을



기업가정신 교육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창업 정신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시도할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 백동현 창조창업·창직 교육센터 센터장

아끼지 않는다. 창업 동아리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다산창업 동아리 육성시스템과 다산창업 지식나눔단이 있다.

다산 창업 동아리 육성 시스템은 전담 멘토교수를 지정하여 창업 아이템을 컨설팅하고 시제품을 제작,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경진대회 참가를 지원하며 창업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을 줌으로써 창업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창업 동아리를 집중 육성하여 우수 창업 동아리가 탄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유망 창업기업 CEO로 구성된 창업지식나눔단을 구성하여 상시 창업 멘토링지원 및 실제 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단국대학교 특유의 창업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과 창업 동아리가 상생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창업 동아리 선정심사



창업 동아리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창업 동아리 수	25명	28명	33명
창업 동아리 회원 수	293명	190명	138명
학생 창업	4명	6명	13명

창업경쟁력 향상을 드러내는 성과들			
항목	2012년	2013년	2014년
창업 동아리 수	20개	25개	28개
신규 사업자 등록 수	3개	4개	6개
창업캠프/창업사관학교 운영	1회	2회	3회
외부 창업경진대회 수상	5회	6회	23회
창업 동아리 지식재산권 출원	2건	1건	12건

외부 경진대회(2015 창조경제박람회) 지원





창업 OX 퀴즈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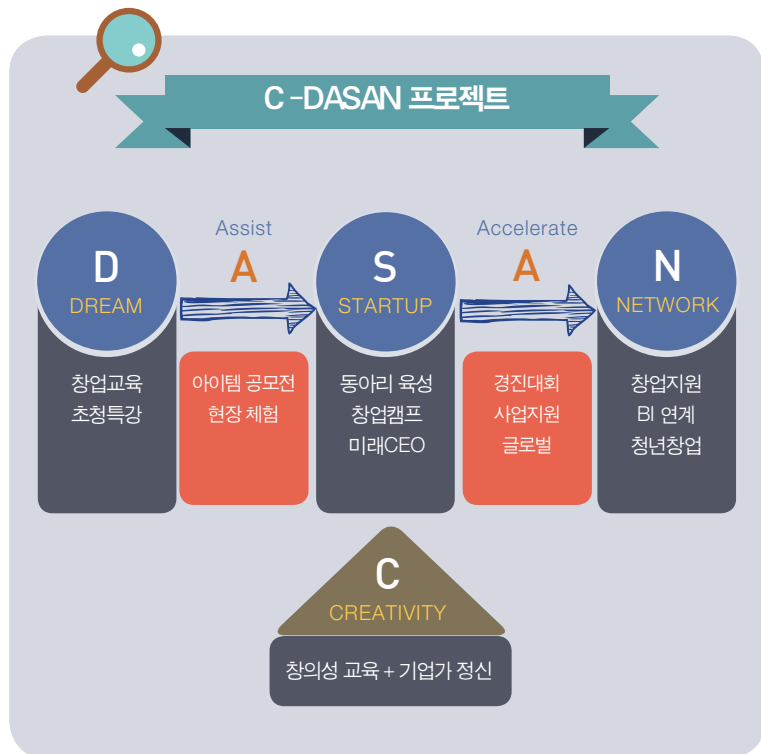
DKU 창업몰입형 교육 시스템 비교과 과정 ② 도전을 지원한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창업 인재 육성프로젝트인 'C-DASAN 프로젝트'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실천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DKU 창업사관학교', 실전창업 프로젝트인 '단국Real 창업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DASAN 프로젝트

Creative의 C, Dream의 D, Assist의 A, Start-up의 S, Accelerate의 A, Network의 N을 조합한 C-DASAN은 창의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돕고, 창업캠프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창업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3년간 창업자 15명을 배출하였으며, 직원고용 12명 및 총 111,205,000원 매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창업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2012년에는 재학생 창업 3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9명이 창업하였고, 2015년에는 17명이 창업에 이르렀다.



다산 청년 창업사관학교

DKU 창업사관학교

단국대학교는 하계와 동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일주일간의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한다.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항목	창업사관학교 1기	창업사관학교 2기	창업사관학교 3기
교육 일자	2014. 11	2015. 06. 22.~ 06. 26	2015. 12. 21.~ 12. 24
참석 인원	24명	25명	30명
교육 내용	· 실제 창업에 필요한 교육 내용 · 창업우수 기업 탐방	· 우수 벤처창업기업탐방 · 지식재산권, 사업계획서 관련 교육 · 상권분석 및 창업	· 실전 창업실습위주로 교육을 통한 실제 창업

실전창업 프로젝트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개별적 창업 플로우에 맞춘 에스코트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단국Real 창업 프로젝트 지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시대 기업가적 창업대학을 꿈꾼다



단국대는 2014학년도에 천안캠퍼스와 죽전캠퍼스의 통합으로 제2의 창학을 알렸다. 단순한 외형적 통합이 아닌 2개의 캠퍼스를 유지하면서 천안캠퍼스의 지위를 본교로 격상하고 특성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각 캠퍼스의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성화 정책에 따라 죽전캠퍼스는 정보통신IT와 문화 콘텐츠CT로, 천안캠퍼스는 생명과학BT과 외국어 특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천안캠퍼스는 단국대병원과 치과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대덕연구단지 등 BT관련 연구 기관과 협력하며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에서 3년째 전국 최고 점수를 획득했고 세계 최고의 메디바이오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캠퍼스 내에서 외국인과 즐기는 'DKU ISS'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단국대학교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몽골학과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이며 '신 실크로드'의 중계역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몽골과의 창업교육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 연계 전공에 몽골의 문화유산, 바이오자원 등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세계 10대 자원보유국 중

하나인 몽골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성화된 첨단학문 육성으로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단국대학교는 화학과 생명과학 분야특성화를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대학 특성화 분야인 메디바이오 관련 분야의 창업교육에 특화되어 있는데, '제약생명공학의

중국엔다그룹 초청 글로벌 창업전략 간담회



글로벌 스타트업 연수

이해와 창업', '바이오 기업가정신'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특성화 분야의 실질적인 창업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외제약 이사, 한국젠스 소장, 유나이티드 제약 사장 등 특성화 분야 관련 기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메디바이오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생명과학창업보육센터와도 연계하여 메디바이오분야 보육센터 입주 기업의 현장 견학 및 실습을 통하여 창업을 간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과 함께 뛰어라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지역사회의 창업 전문가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사관학교를 학외의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실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권 창업지락 참가



충남·호남·제주권의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창업문화로드쇼 '창업지락'을 개최하여 지역 내 창업문화 확산에 일조하였다.

지역 창업자들을 위해 심화된 창업교육

천안캠퍼스가 위치한 충남 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의 창업자를 활용한 특강을 상시 운영하여 지역의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공기관과의 공동 창업교육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등 지역 창업 관련 지원 기관의 창업전문가를 초빙한 학생 창업특강도 운영하였으며

2015 지역 희망박람회 참가






제1회 충청 아이디어 빅리그 참가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과는 '무한상상 창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화 분야인 '충남지역 청년 CEO 500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학생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제1회 무한상상 창의 경진대회

2015. 5. 1 ~ 5. 31

국민의 창의력 향상과 창의문화 확산을 위한 우정공무원교육원 '제1회 무한상상 창의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주제	무한상상 꿈을 현실로!
참가 대상	전국 초·중·고 및 대학생, 일반인 (분야별 개인 또는 팀 참가)
참수 기간	2015. 5. 1 ~ 5. 31 (보. 본선 대회 : 6. 20(토) (본선 당일 최상 IT 기술 홍보 부스 설치, 우정박물관 연대, 체험프로그램 운영)
접수 방법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이메일(krea01@koreapost.go.kr)로 송부
수상자 발표 및 시상	6월중

★ 경진대회 분야 및 시상내역

☞ 세부내용(영인 및 시상내용, 접수일시 등)은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www.kpost.go.kr) 공지사항 참조

01 우정사업 창의혁신 아이디어 개인	02 무한상상 + 아이디어(초·중·고·대학) + 아이디어(초·중·고·대학) 개인	03 이노비트론 바탕 개인	04 나만의 동영상을 만들기 개인 또는 팀
-----------------------------------	---	--------------------------------	--------------------------------------

※ 각 분야별 순위에 따라 수상자 결정, 시상 및 부상품 또는 부상금 지급

주최·주관 우정공무원교육원

후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www.kpost.go.kr / 041-560-5214, 5217



언론 속의 단국대학교

충남의 비전을 경영하라

전 국민이 좋아하는 프로야구를 응용해 보드게임 창업에 뛰어든 젊은 청년이 있다. 2013년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한 서바이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인 김형기 청년 사업가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현재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년CEO 500프로젝트에 참가해 열정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 사업가 김형기 씨에게 창업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에 대해 들어 보았다.

“노벨포인트(Novel Point)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 동아리의 이름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점’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 무엇보다 동아리 활동은 재정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긍정적이다. 초기 창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이다. 힘을 받을 수 있다.”

〈충남넷〉 2014/04/16

창업교육 현장을 가다 2

창업교육을 통해 실전창업으로, 꿈의 기틀을 마련하다

유아기 아동들을 위한 한글 교구 ‘세종블록’을 개발하고 창업한 허수빈 씨(공예과 3학년)는 고등학생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다. 단국대학교 입학 직후부터 창업강좌를 집중적으로 수강하고 창업 동아리를 만드는 데 이어 지금은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공예과라는 전공 특성상 졸업 후 작가의 길을 걷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술 활동보다는 제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어요. 입학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확고했죠. 문제는 무엇을 공부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창업강좌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막연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교육센터를 찾아 여러 가지 도움을 얻으면서 아이디어를 실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창업강좌를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꾸준히 배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임균진 씨(생명과학과 4학년) 또한 창업강좌를 수강한 것이 실전 창업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미디어바이오창업화 연계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창업 동아리 ‘크리에이티브 포인트’를 꾸렸다. 창업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분기별로 프로젝트를 확장시킨 끝에 사회적 기업 ‘토닥’을 만들었다.

“우리 학교 링크사업단은 열린 공간입니다. 언제든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간 지원 등 실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전공과 무관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창업 동아리가 사업체가 되고,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그러한 심적·물리적 도움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현(스포츠경영학과 4학년) 씨는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스포루즈’를 운영하고 있다. 스포루즈는 국내 유일의 대학생 스포츠 창업 동아리로, 2년 만에 골프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상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천안시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역 교육기관 스포츠클럽 12개 종목의 운영을 담당하기도 했다.

“저희는 스포츠경영학과 학생들이 모여 창업한 케이스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사업규모들이 워낙 커서 학생 창업으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일단 저희가 가담할 수 있는 초중고 체육교육 및 체육 이벤트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재무제표를 보고, MOU를 맺는 등 실무와 관련된 지식이 없다시피 했는데 몰입형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창업교육을 받고 뛰어드는 것과 전혀 그런 기반 없이 뛰어드는 데는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기업가정신 함양으로 달라지는 학생, 창업·창직 교육으로 발전하는 대학

단국대학교 창조창업·창직 교육센터 백동현 센터장



숨페터는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기업가는 혁신 창조적인 파괴, 새로운 결합, 남다른 발상, 남다른 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단국대학교 창조창업·창직 교육센터는 기업가정신 함양의 목표를 창업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진로를 개척함에 있어 가능성과 기회를 모색하는 힘을 기르는 데 두고 있다. 백동현 센터장에게 단국대학교의 창업교육 비전과 현주소를 물었다.

단국대학교에는 창업뿐 아니라 창직교육 부문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창업·창직 영역 교양 선택 과목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단국대학교만의 특성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기초 과목부터 창업실전, 창업실무까지 다양한 단계별 강좌가 제공됩니다. 특히 '쉽게 배우는 창업', '재미있는 창업자 이야기' 등 창업에 관한 오해와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교양 강좌들이 많이 개설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창업할 마음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실무 관련 창업강좌도 다채롭게 제공됩니다.

창업·창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틀이 될 만한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맞습니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시도할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주체적으로 일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남과는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을 기업가정신이라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 강좌를 수강한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취업 시 면접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업가정신이 함양되면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창업자가 되든 아니면 기업에 입사하든,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여러 변수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작년에 16개의 스타트업이 생겼는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일례로 '집하우징'이라는 창업 동아리는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외국인 주

거 전문 상담/ 통역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원하는 집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오프라인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지요. 차후에는 직접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데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창업 동아리에서 시작해 사업화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학생 창업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창업뿐 아니라 기업에 관한 생각, 직장과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데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 여행기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형 여행사의 문을 몇 번 두드렸지만 번번이 취업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지요. 이 학생이 창업강좌를 수강한 후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창업'으로 바꿨습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 취업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작지만 가능성 있는 여행 기획사로 취업 목표를 바꾸었고, 입사해서 지금은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마음자세를 변화시키고 시각을 열어주는 것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단국대학교의 창업교육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 현재 성과를 내는 이유는 초기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관한 관심을 확장시키고, 이후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보다 밀도 있는 실무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와 창업 동아리 기본 지원금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등 창업 초기 지원 프로그램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가정신 함양에 목적을 둔 교육과 현장 밀착형 교육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학 창업교육에 바란다

대학 창업교육, 개선할 점은?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듣는 학생보다는 필수과목이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이 실상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푸른밤 김진용 대표는 '즐거움 프로젝트가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재미'있는 커리큘럼의 구성을 강조했다.



“재미를 느끼면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해결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몰입하며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창업교육은 대부분의 제도 교육이 그렇듯 다소 단조롭다는 인상이 듭니다.”

이에 '세종블록'을 창업한 단국대학교 재학생 김형기 씨는 “창업강좌를 적극적으로 수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분명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음을 느낍니다.”라며 “하지만 교육이 단조롭게 느껴진다는 김진용 대표의 말에 공감합니다. 이를 테면 특허나 지적재산권 등을 반복학습하게 되는데, 개인 역량이나 단계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초기 시장 진입 시 매출 활로를 찾는 방법을 분야별로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지적했다.

— 2016 대학 창업교육 간담회 중에서

- 김진용 대표는 ... 주식회사 푸른밤 대표이사.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 2014년 매장 관리 플랫폼 '알밤'을 선보였다.



조직 청년기업가센터

투자 2012~2013년 6억1천만 원, 2014년 5억 원

학사제도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창업휴학제)

교과과정 창업교육(강좌), 필수이수(핵심교양) 제도화

전공설치 창업학 연계전공 개발

지역 창업지원 충무로컬처밸리 연계

03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창조적 창업문화를 실현한다



동국대는 '창업하기 좋은 대학'이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똘똘 뭉친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대학 창업교육 통합전담기구의 선도모델인 청년기업가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창업학 연계전공을 개발, 운영하는 것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글로벌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전주기 스타트업 양성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창업교육 개발 및 전체 창업강좌를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조적 대학-지역사회 활성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창출로 창업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으며, 대학-전통시장-지자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창업교육을 통해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중이다. 🌻



창업교육 인프라,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할 것인가



대학에서 창업문화조차 생소하던 1999년, 동국대는 선도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했다. 2011년에는 그간의 창업지원 노하우 및 인프라를 토대로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5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또 최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2015 산학협력 EXPO'에서 창업교육 우수대학(창업문화 활성화 부문)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SK그룹이 대학과 손잡고 지원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인 'SK 청년 비상(飛上)' 프로그램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학은 창업교육 및 창업 아이템 발굴에 힘쓰고, SK그룹은 창업 아이템을 고도화시켜 인큐베이팅, 엔젤투자 연계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담당하며, 2년간 6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5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으로도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 중 최고 금액인 25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항목	재원 투입금(단위:천 원)			내용	현물
	2012년	2013년	2014년		
창업강좌 (학점기반)	133,000	130,000	211,000	창업강좌 운영을 위한 특강강사 및 현장견학, 지재권 지원 등	창업강좌 운영을 위한 강의실 제공, 전담교수 지원, 지원인력 배치
창업멘토링 및 동아리 활동	51,195	70,000	100,000	실전 창업 동아리 지원금 및 공간, 멘토지원	창업 동아리 멘토 교원 지원, 창업 동아리 독립공간 지원
창업교육 (기타)	35,678	95,770	112,100	학점기반 이외의 창업 아카데미, 글로벌 창업교육, 적정기술기반교육, 앱 특화교육 등	교육실, 실습실 지원 지원인력 지원
창업캠프	33,621	66,219	77,013	창업캠프를 통한 집중 교육 실시 및 단기간 내의 효과적인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멘토링 공간 지원



학생 창업공간 iSpace

동아리에서 기업까지, 창업공간 및 기자재 지원

S, A, B급 세분화된 창업 동아리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단독 또는 공용으로 사업자등록까지 가능한 창업 동아리실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큐베이팅 시설인 서울창업보육센터와 일산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서도 학생 창업기업에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세미나, 대고객 설명회 등이 가능한 15명, 30명, 50명 규모 세미나실 사용을 지원하며 창업기업 및 학생들이 수시로 이용 가능한 소회의실 사용 또한 지원하고 있다.

대학의 특성화 분야인 문화 콘텐츠 관련 장비를 다수 보유한 공용장비지원센터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3D콘텐츠 제작과 같은 관련 산업은 물론 의료·바이오진단, 환경오염물질 검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창



창업 동아리 공간

업강좌의 실습용도로도 운영되며,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테스트 또한 가능한 시설이다.

장비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별로 ‘책임교수 관리’ 장비와 ‘위탁업체 관리’ 장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공용장비센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사업단을 통하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원스톱 창업지원



동국대학교는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고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 기업가 육성을 위해 대학본부 산하 정규조직으로 대학창업교육 통합 전담기구인 ‘청년기업가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 전체 차원의 기업가정신 함양, 예비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 사업화 지원까지 아우르는 교내 ‘원스톱One-Stop 창업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학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융합형 창의인재를 교육하고, 이를 통해 청년기업가를 발굴하고 학내 창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 커리큘럼 개발, 창업트랙 및 인증제도 개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편, 창업 동아리 지원 및 육성, 창업능력 배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창업멘토 네트워크 구성 등을 실행하고 있다.

창업교육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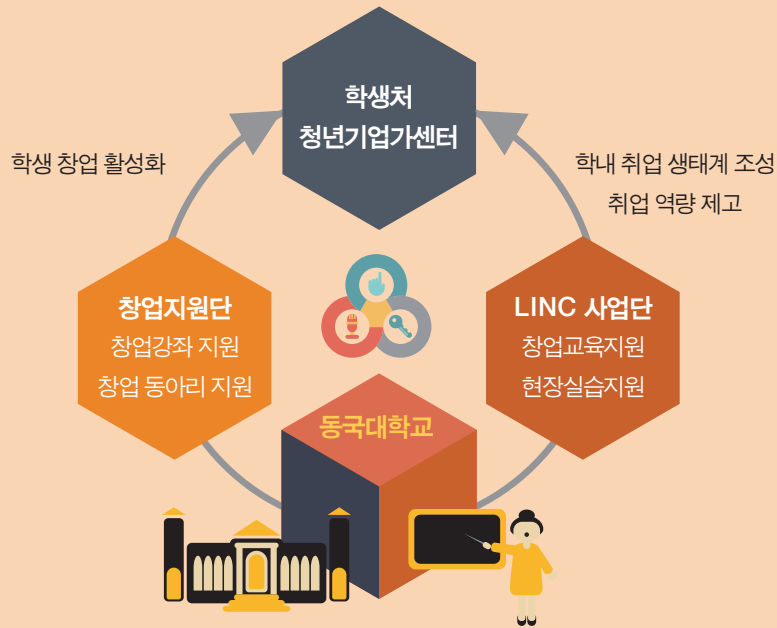
원스톱 창업교육 지원 시스템의 구축으로 학생 창업도전이 가능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며, 창업강좌를 통한 창업교육과 사후 창업의지 확산을 위한 창업 동아리활동 및 창업경진대회, 중소기업청과 창업사업화 연계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창업전담교원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다

동국대학교는 교내·외에서 창업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공·수준별 창업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교수법에 대한 지속적 개발·운영과 창업강좌의 수시·정기 간담회를 열어 강좌 운영 피드백을 하고 있다. 학기별 3~5회의 전담교원 정기 간담회 운영으로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을 공유하며, 청년기업가센터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교수·학생·운영진의 효율적인 다자간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했다.

more info

동국대학교 사례로 보는 창업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창업교육 제도화

- 창업교육 커리큘럼 개발 (교과, 비교과)
- 창업교과 학점 부여
- 창업트랙 및 인증제도 개발
- 창업교원 역량 강화

창업 환경 조성

- 창업 동아리 지원 및 육성
- 창업 능력 배양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창업 멘토 네트워크 구성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지원

현장실습 인프라 확산

- 우수 현장실습 기업 발굴
- 현장실습(인턴십) 관련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도전을 지원하라



동국대학교는 교육, 공간, 자금, 전문가의 연계지원으로 기업가적 문화의 확산, 양질의 미래형 일자리의 창출,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하고, 창업강좌 프로그램과 창업 동아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일반인 실전 창업강좌 등을 통해 창업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교내 창업문화 조성에 일조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교육부의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부합하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및 구축을 통해 교내 창업문화 조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였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는 준비된 창업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대학 내에 마련하고,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무장된 창의적 인재를 발굴·육성하며, 교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으로 창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휴학제는 창업(휴학사유)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4학기)까지 연속 휴학 가능 제도로써 도입 이후 현재 19명 창업휴학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통해 학생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5명이 수혜(전국 최대 수혜 대학)를 받고 있다.

또한 다학제적 지식·실무융합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창업학 연계전공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전주기 창업단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과 함께 공학·경영·경제·법학 해당 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면 창업학 연계전공 학위를 부여한다. 더불어 창업대체학점인정제의 점진적 시행을 통하여 창업학 연계전공과 비교과활동(창업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추가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주도 기술기반 융합형 고급 창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일반 대학원에 기술창업대학원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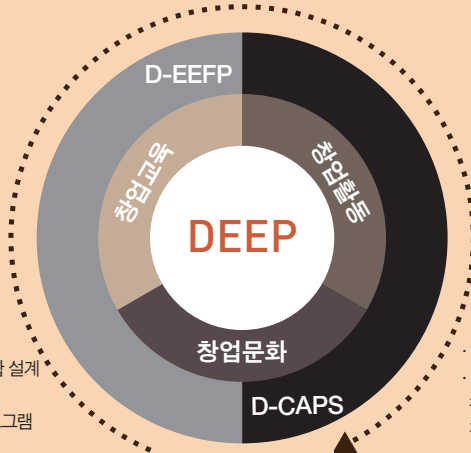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현황			
항목/년도	2014년	2015년	합계
창업휴학제	19명	18명	27명
창업학 연계전공	5명	-	5명
희망사다리 장학생(창업)	-	5명	5명



학생 창업교육 지원 체계 구축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부합

글로벌 역량(콜롬버스 프로그램)



- 다차원적 통합 설계
- 동국대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 투 트랙 전략
- 전주기적 창업교육의 전문화, 집중화 체계 구축

D-EEFP

교육 수요자 특성 반영 (전공 & 수준 고려)

단계별 연계성 (학년 & 학위 과정 고려)

융합적 접근 (체험형 강좌 & 다학제 접근)

Dongguk
Entrepreneurship
Education
Fast-track Program

D-CAPS

창업 동아리 수준별 지원 (맞춤형 멘토링)

실제 사업화 단계별 연계 (스타트업 컨설팅 & BI 입주)

지속 가능한 성장 초점 (전주기 & 전문 네트워크 지원)

Dongguk
Collaborative
Acceleration
Program for Startups

학내 창업문화를 조성하는 투 트랙형 창업교육의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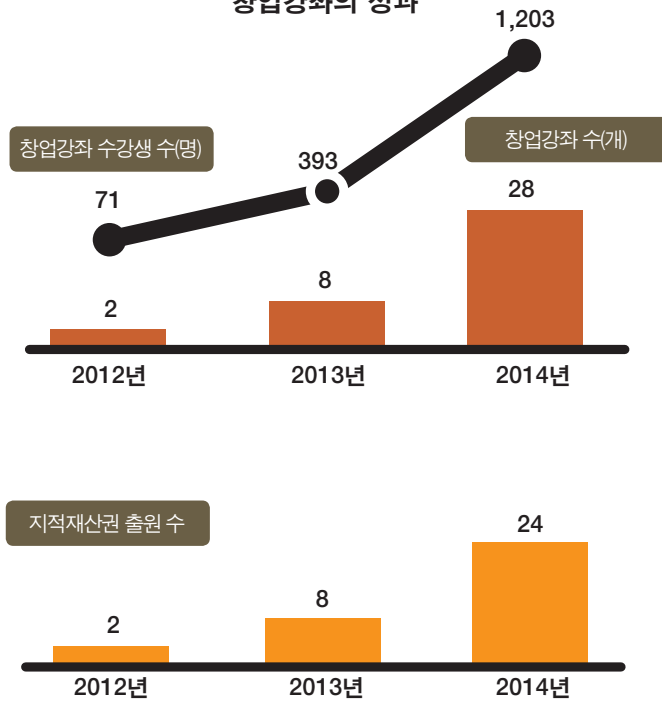
대학 전체 차원에서 창업교육 강좌를 핵심교양, 즉 필수이수제도로 만들어 대학창업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공·수준별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면 확대를 통해 학내에 기업가정신을 확산해가고 있다.

교육수요자 특성에 맞는 목적·수준별 강좌, 단계별 연계성, 융합적 접근을 원칙으로 이론적 학습을 통한 인식의 전환, 가상 창업을 통한

창업교육 정규강좌



창업강좌의 성과



내재화, 실무 체험형 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력 배양을 목표로 커리큘럼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연차별 창업 정규강좌 수는 2012년에 2개에서 2014년에는 28개로, 수강생 수가 2012년에 71명에서 2014년에는 1,203명까지 늘었으며, 강좌 연계 지적재산권 출원은 2012년 2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4건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기술기반 융합형 고급 창업인재 양성을 목표로 일반 대학원 기술창업학과를 신설하였다.



창업교육 정규강좌

기업가정신의 기틀을 다지고 문제해결력을 기른다 : 정규 창업강좌

동국대의 공통교양 강좌로는 '소셜 앙트러프러너십', '글로벌 앙트러프러너십', '테크노 앙트러프러너십' 등이 있다.

'소셜 앙트러프러너십'은 우리 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s)'에 대한 대안 및 다양한 모델의 사례분석 학습(토론, 현장견학,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하며, '글로벌 앙트러프러너십'에서는 글로벌 창업가 롤모델을 통해 스타트업 사례들을 살펴보고, '테크노 앙트러프러너십'에서는 과학기술기반 창업의 사회적 역할과 성공 모델에 대해 알아본다.

세 과정 모두 기본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일반 교양 강좌는 기업가정신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해보도록 구성되어있다.

‘기업가정신과 청년기업가’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기초 이해(기업가정신의 정의, 혁신과 위험관리, 사업기회의 포착, 창업프로세스, 기업의 성장관리 등)와 실제 청년기업가들의 사례조사를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포괄적 학습과 이해를 돕는다.

‘기업가정신과 창업’ 수강생들은 사업추진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점에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가상화폐를 가지고 직접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스타트업 캡스톤디자인’은 창업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학생들의 아이템을 기초로 창업(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학습한다.

‘다학제 캡스톤디자인’과 ‘창업 캡스톤디자인’은 다수 전공의 학생들이

애프터스쿨 : 동국 디자인 이노베이터 교육



팀을 구성하여 복잡적이고 창의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해결 목표를 설정한 뒤 다양한 학사제도 간 지도교수의 지문을 통해 학생이 직접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수업이다.

전공강좌인 ‘창업론’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이론과 주요 이슈를 다루며 특히 창업 기회를 포착하여 성장성을 평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습득할 수 있다.

창업에 필요한 실전지식을 키운다 :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은 사업화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창업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애프터스쿨 과목으로는 ‘Biz-Model 개발’, ‘지적재산권 A to Z

애프터스쿨 : 글로벌 소셜 창의인재양성 교육





창업강좌의 단계별 구성 및 성과





비즈 모델 캠프

전문교육', 'SNS 교육' 등이 있다.

'Biz-Model 개발'은 해외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람 중심의 혁신기법 UCI, User-Centered Innovation'에 따라 고객의 니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또는 모델을 발견해 내는 창의적 혁신 기법 교육이다.

특허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지적재산권 A to Z 전문교육'에서는 특허의 기본개요 및 활용을 배우고 특허 분쟁의 중요성과 청구범위, 특허명세서 작성요령 등을 배운다.

'SNS 교육'을 통해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비즈니스·마케팅 최신 흐름을 제대로 파악함은 물론 관련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



창업캠프

실제 기업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온·오프라인 소셜 콘텐츠 기획과 프로젝트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격과정 취득, 우수 수료생에 인턴 및 실제 채용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취업지원까지 연계된다.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하는 1:1 전담 멘토링

분야별 창업전문가(동문창업가, VC, 멘토)로 구성된 창업교육멘토단 운영을 통해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창업 동아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회성 창업 동아리 멘토링 및 동아리 자금 지원이 아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공간 지원과 1:1 전담교원 및 민간 액셀러레이터 멘토링으로

실제 창업까지 연계 지원한다. 또한 교내 창업지원단과 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 및 인큐베이팅을 위한 BI 입주 등 전주기적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정과 재능을 발굴하는 인재 양성 & 지원 프로그램

교내 창업문화 확산을 목표로 동국창업리그, 동국청년창업한마당, DGU Entrepreneurship Festival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창업의 기반이 되는 기업가정신 확산과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여 청년·벤처창업 붐을 확산시키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으로 지역 내 경제적·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이다.

DGU Entrepreneurship Festival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청년 창업가를 꿈꾼다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목표 교육 '글로벌창업교육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창업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글로벌스타트업경진대회_unBound digital(영국)' 유치를 통해 글로벌 창업문화를 조성하며, 미국·영국·중국·헝가리·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 출전 및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글로벌 지역창업 전문가 인턴십 활동도 활성화하고 있다.

대학 특성화 분야와 창업교육의 연계

융합형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충무콘텐츠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화업종의 앱·콘텐츠·SW융합 등 창의적 아

동국청년창업한마당



이디어 보유자에게 아이템 개발 비용 및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창업 동아리 3팀을 포함한 우수아이템 보유자 중 총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아이템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상권을 디자인하라



동국대학교는 2014년 국내 최초로 지역사회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개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의 시범사업을 운영해 도심 상권 활성화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 내 창업교육의 거점센터로서 기능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인 대상 전주기적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역사회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전주기적 지역 창업교육 시스템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 촉진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한 유망 투자기관 연계·우수 창업자 발굴·육성을 목표로, 전주기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단계로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기업 지원 효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 혁신기술과 문화 융합형 창업가 배출, 성장 잠재력과 창업 효과성을 반영한 창조경제형 ICT기반 전략산업 및 문화 콘텐츠 융합 산업 분야의 중점 지원을 통한 미래형 산업의 조기 지원을 목표로 한다.

Step 1	총무로 컬러밸리 중심 특성화된 우수 문화 콘텐츠 분야 집중 선발
Step 2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 스타트업 팩토리 운영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심화교육 실시
Step 3	창업자 수요·반영형 맞춤형 멘토링 실시
Step 4	온라인 창업시스템(중소기업청)의 적극 활용을 통한 사업절차 간소화 및 일원화
상시	월별점검 → 애로사항 접수 → 행정 지원 → 추진방향 지문 등 단계별 창업자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및 성공률 제고

항목/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수강생	57명	94명	96명	247명
개설 강좌 수	2개	2개	4개	8개
신규사업자 배출	9장	8장	12장	29장
매출액(천 원)	—	338,370	204,000	542,370
수상실적	—	—	10건	10건



지역사회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넓은 상권, 젊은 대학생과 손잡다

동국대학교는 대학-전통시장-지자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창업교육 산학협력 선도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대학 전체차원의 다학제 전공 학생들이 참여,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함양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지역사회+관련기관이 융·복합된 시스템을 만들어 우수성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신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형 다학제 캡스톤디자인 현장 견학

지역밀착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동국대는 도심 상권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기청 유통상생TF팀과 협력해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는 성남시 지역 시장 상권과 청년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2014년 상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캡스톤디자인 교육으로 진행했던 수업에 지역 소상공인과 산업체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현장 연계형 산학과제로 거듭났다.

!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이렇게 교실 내 창업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고, 특정한 장소를 정해 학생들이 사회에 능력을 기여하게 하지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호응이 좋아 지금은 중구청과 연계된 큰 과제 형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전병훈 청년기업가센터장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시장공단과 신세계 그룹이 실습비용을 지원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워크숍에도 참여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대학과 소상공인시장공단, 대기업이 손을 잡아 운영한 지역사회 연계형 창업교육이었다.

이에 2015년 중소기업청을 통해 22개 대학이 참여한 총 29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을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2학기에 지역사회 융합형 캡스톤디자인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강좌 수강생 중 교내 4건, 외부기관장상 6건이 수상하였다. 강좌 운영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6건 출원하였고, 참여 학생 중 2팀(6명)이 실제 청년 창업(가변형가판대/음원아이템)을 하였으며, 전시 및 사례발표 4회를 통해 교내·외에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면서 서울시 캠퍼스 CEO왕중왕전에서 우수성과를 발표하며 대상을 수상(학생팀)하였고, 2014 산학 EXPO에도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학생팀)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대학의 사회적 책임 활동 및 지역사회구성원들과 연계한 지속적인 산학협력 성공모델 발굴해 냈고 창조적 대학-전통시장협력 선도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년의 기업가정신 및

연
속
의
동
국
대
학
과

전통시장, 젊은 피로 살리자 ① 야심만만 대학생들, 전통시장을 바꾸다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낡고 고루한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요즘 우리 전통시장이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은 이처럼 '젊은 피'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법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파장 분위기였을 저녁 8시, 서울 통인시장에 조출한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아가지기한 좌판은 기본이고, 한쪽에서는 시장에 흔치 않은 색다른 간식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습니다. 통인시장과 협력사업에 나선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마련한 풍경입니다.

전병훈 교수(동국대학교 청년기업가센터장) : 시장이라는 장소에서 음식 맛을 보거나 재미를 느끼고 볼 게 많다고 느끼기보다는, 자기 전공을 살려서 뭔가 적용을 시킬 것이 없는지를 찾아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5/12/16

건강한 사회적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 전통시장의 미래고객이자 지역 사회 구성원인 학생들이 실제 우리사 회의 문제(전통시장)를 직접 참여,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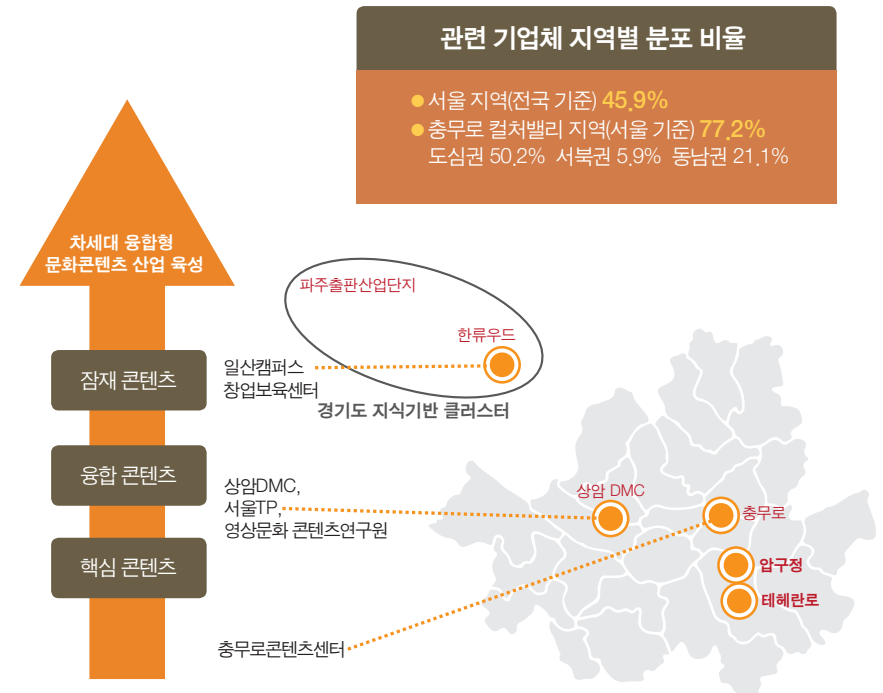
지역 산업생태계 속으로 뛰어든다

동국대가 보유한 IT융복합 문화 콘텐츠와 바이오 인프라와 충무로·상암·일산·파주의 관련 산업단지를 잇는 충무로 걸쳐밸리 Culture Valley로 문화 콘텐츠 기반 기업과 산학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미디어 분야의 융·복합 전문인력(트렌스미디어 프로듀서)을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학생 창업교육 활동 및 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가정신+예술+인문+공학을 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정규 융합교육과정으로 매학기 교수-학생-산업체를 매칭, 공동 협업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 인력 양성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팀별 개발 결과물 사업화(Google, Apple, D-Market 앱 등록)를 추진하였으며, 대학 차원의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과 콘텐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 연계 사업화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국 플라마켓



창업교육 현장을 가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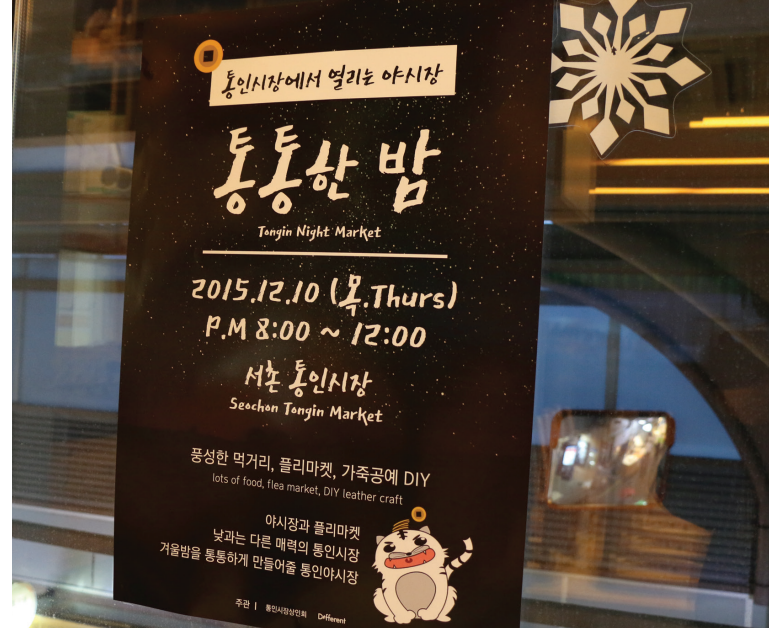
우연히 듣게 된 창업강좌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다

통인시장에 가면 흘러나오는 노래, 윤수연(멀티미디어 공학과 4학년) 씨가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든 노래이다.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수연 씨는 고등학생 시절 뮤지션을 꿈꾸는 동시에 언젠가 회사를 차려 음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대학 입학 후 그러한 꿈을 잊고 살던 중 우연히 ‘기업가정신과 창업’이라는 교양수업을 수강한 것이 계기가 되어 창업에 대한 열망이 되살아났다. 그 길로 창업지원단을 찾아 꿈을 현실로 만들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사실 창업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어요. 실패하면 어찌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업 동아리를 꾸리고 팀원을 모으고, 그러다 팀원들과의 불화도 겪고,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았는데 냉담한 반응에 실망하기도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점차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실 윤수연 씨의 창업 경험은 한 번이 아니다. 세 번이나 각기 다른 아이템으로 도전해본 경험이 있다.

“창업 동아리를 통해 세 번 정도 창업에 도전했는데 모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낙담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결과적으로는 도전정신을 일깨워주었어요. 이제는 실



패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성패를 떠나 경험치가 쌓임에 따라 창업 역량이 커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러나 도전하고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몇 번의 경험을 거치며 책에서 읽은 기업가정신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때 우연히 듣게 된 창업강좌가 없었다면 수연 씨의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수연 씨는 “아마 보통의 대학생들처럼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학교의 창업교육은 수연 씨에게 취업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눈뜨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그러한 발견은 학교의 지원과 멘토링 덕분에 확신으로 바뀌었다.

“고민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지원뿐 아니라, 제가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과정이 저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젊은 아이디어, 젊은 정신

동국대학교 청년기업가센터 전병훈 센터장



한동안 모란시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공과대, 인문대, 예술대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 100여 명이 디자인 및 시설을 개선하고 전통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장 상인들과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는 참여 학생과 상인들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을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하는 실천 창업교육에 대한 가능성도 보여줬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동국대학교 청년기업가센터 전병훈 센터장을 만나 동국대학교의 창업교육에 관해 들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요즘 공과대학에서 당연시하는 교과 중 하나가 캡스톤디자인입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팀을 이루고 아이템을 선정하고 시장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시제작까지 해서 발표하는 창업교육의 일종인데, 이 교육이 십여 년 지속되다 보니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캡스톤디자인 교육에 한계를 느꼈어요. 상당히 독창적인 시제품이라 해도 대부분 사장되었거든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교실 밖으로 발산하도록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이렇게 교실 내 창업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고, 특정한 장소를 정해 학생들이

사회에 능력을 기여하도록 하지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호응이 좋아 지금은 중구청과 연계된 큰 과제 형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총무로 걸처밸리와 연계하는 융합창업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총무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인문학과 경영학, 예술 등이 융합된 창업교육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있었던 공연을 국내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트랜스 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공연을 다루므로 예술 분야가 필요하고, 마케팅과 관련해 경영 지식이 필요하며, 장치나 전송 등의 기술적 부분이 요구되므로 공학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이 서비스를 제공할 회사를 세울 창업 실무지식이 필요합니다.

문화 콘텐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학생 창업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이처럼 자연스럽게 융·복합형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내 창업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선결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창업문화 확산과 관련된 노하우를 귀띔해주셔도 좋습니다.

— 대학과 창업은 사실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창업교육은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의 도전정신, 창의적 역량 등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데 공감을 이끌어내야 했지요. 다행히도 암암리에 학생들의 결과물이 도출되고 그것이 학교를 알리는 계기가 되다 보니 학내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창업교과를 만들었으나 초반에는 학생들의 호응이 높지 않았습니다. 교직원들에게 ‘왜 창업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설득시켜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 ‘왜 창업교육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고, 그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교직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고 그밖에 주목할 성과를 내는 창업 동아리가 늘어나는 등 선배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업교육에 열정을 가진 분들의 노력이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입니다.

아직은 완벽히 자리 잡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점차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다 보면 안정된 창업문화가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 창업교육에 바란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실효성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대한 대학생들과 선배 창업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Playplay 서동철 대표는 창업현장실습의 효용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서 대표는 모 대학에 공고를 내서 팀으로 지원한 학생들을 해외마케팅 프로젝트에 투입한 경험이 있다. ‘학생들은 학점을 부여받으며 회사에서 인턴이나 학생신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고 언급하며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통해 인턴경험을 쌓고 회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점도 받고 회사에서 인턴 급여도 받고 학생들에게도 회사에도



모두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투입된 네 명 중 두 명이 나중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좀 더 널리 보급되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SNS에너지 김찬호 대표는 제도는 구축으로 끝나서는 안 됨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학교 재학생으로 ‘오피스엔’을 창업한 한성원 씨는 “적어도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업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가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2016 대학 창업교육 간담회 중에서

- 서동철 대표는 ... Playplay 대표이사, 2013년 창업하여 로봇을 이용한 SW교육 교구 재 제조 및 교육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조직 글로벌기업가센터(창업전담조직)

투자 2013~2014년 39억 원, 2015년 30억 원

학사제도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완전 도입

교과과정 테크노 경영학(스타트업 종합설계), 스타트업 A to Z 등 다수 운영

전공설치 창업융합전공 개설

지역 창업지원 성동구 일대,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04


창업교육으로 스타트업 성공신화를 만들어간다



한양대학교는 창업을 꿈꾸는 재학생 및 동문 그리고 초기 기업가들에게 선배 기업가들의 현장경험과 실전지혜를 전수하여 '준비된 기술창업인'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009년 국내 대학 최초로 글로벌기업가센터를 개설하였다.

2014년에는 글로벌기업가센터, 한양리더십센터, 커리어개발센터, 한양상담센터에 분산됐던 인재 육성 기능을 한데 묶어 재학생의 종합적 경력 개발 및 창업교육, 창업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한양인재개발원을 설립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였다. 교육과 멘토링, 보육, 투자로 이어지는 전주기형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문이 참여하는 실전창업 지원을 통해 2015년 현재 창업강좌 수 53개, 전담 교직원 34명, 창업기업 수는 33개에 달한다.

국내 최초 블렌디드 러닝, 수강생 전원 특허 출원, 오픈마켓 운영, 최대 규모의 캐시클래스 등 실습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 뉴욕, 상하이 등에 글로벌기업가센터 현지사무소를 개소하여 창업 활동을 돕고 있다.

또한 창업융합전공을 신설하고 창업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예비 창업가를 발굴해 청년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인재 육성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인프라로 구축되는 스타트업 캠퍼스



한양대학교는 국내 대학 중 1000대 기업 이공계 CEO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중 하나로,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벤처기업 CEO 출신대학' 2위, '4대 그룹 임원 배출' 3위, '코스닥 상장 법인 CEO 출신대학' 3위 등을 기록하며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창업예산 투자규모는 2013년 15억여 원에서 2014년에는 24억여 원, 2015년에는 30억여 원으로 특히 한양벤처동문회 소속 동문 기업가들이 기부한 10억 원은 글로벌기업가센터의 밑거름이 됐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기업가센터는 대학 내 스타트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2013~2014년의 2년에 걸쳐 학생 창업 준비실 3개, 스마트 창작터 2개, 학생/동문 스타트업 사우나 2개, 아이디어 팩토리 1개 등 총 8개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하였다.

숨은 스타트업의 진주를 찾아내는 청년 창업 인프라

재학 중 '1인-1창업' 경험을 장려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학생 스타트업 사우나, 실전창업 역량 배양을 위해 정규 창업강좌 내 10만 원 프로젝트 등 종잣돈(seed money)을 제공하는 캐시클래스(Cash Class)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교육 및 지원 정보교류 협력과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털식 오픈 플랫폼 '한양스타트업라운지'를 개설하였다. 또한 한양엔젤클럽·한양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한 창업자금 투자연계, 재학 중 창업자에게는 창업보육센터 무상입주 등을 지원한다.

정보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오픈플랫폼, 한양스타트업라운지

한양스타트업라운지(startup.hanyang.ac.kr)는 대학 내 창업지원 관련 교육, 유관 프로그램, 멘토-멘티 연계 등 모든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보고 공유할 수 있는 포털식 오픈 플랫폼이다.

이곳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 전문 멘토와 협력 네트워크가 가능하며 창업 아이디어 제안, 사업모델 평가, 창업 시뮬레이터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여 자가 평가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외 각종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창업 아이디어에 제안된 내용은 한양대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적권화 및 시제품 제작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준비 및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양스타트업 멘토단의 평가를 통해 사업모델을 평가받는 사업모델

평가 및 가상 창업 시뮬레이터를 구축한 'BM Competition'을 통해서 창업교육용 이론학습 콘텐츠를 학습하고, 실제 창업자의 사례에 적용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에 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창업 및 사업기획 과정에서 창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분석과 의사결정들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

유일한 학교기반 엔젤클럽, 한양엔젤클럽

한양엔젤클럽은 중기청 산하 한국엔젤투자협회에 공식 등록된 대학기반 엔젤투자클럽 1호로서 엔젤투자를 위해 모인 한양대 동문 벤처기업인들이 2011년 결성하였으며, 전·현직 코스닥상장사 CEO들을 주축으로 현재 5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양엔젤클럽은 다른 엔

한양스타트업라운지 홈페이지



한양엔젤클럽 정기 IR 개최



제2회 한양청년창업펀드 투자상담회

젤투자기관들과는 다르게 한양대 동문들이 나섰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벤처투자에서 매칭 펀드를 받는 20여 개의 엔젤클럽 중 유일한 학교 기반의 기관으로 학교동문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면서 ‘한양’이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하지만 투자·조언·지원규모는 민간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2013년에는 7건의 투자(엔젤 11.7억 원, 정부매칭 7.9억 원), 14년에는 2건의 투자(엔젤 2.5억 원, 정부매칭 1.1억 원), 15년에는 1건을 투자(엔젤 3.6억 원, 정부매칭 2억 원)하면서 실질적인 창업자금 투자지원을 하고 있다. 류창완 한양엔젤클럽 회장은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을 가진 예비 창업자 중에

서는 투자비 모금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양엔젤클럽에서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해 창업 초기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을 가진 예비 창업자 중 투자비 모금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양엔젤클럽에서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해 창업 초기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류창완 글로벌기업가센터장

대학과 벤처캐피탈의 만남, 한양청년창업펀드

한양청년창업펀드는 한양대, 한양여대, 한양 사이버대의 학부 대학원생 및 졸업생, 한양대 주관 창업대회의 수상팀 등을 아우르는 범(汎)한양기업, 일명 ‘한양 가족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하였다. 그들을 대상으로 대학과 벤처캐피탈이 함께 청년 창업가 양성과 더불어 직접 투자자금을 제공해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초기 자금을 제공자는 취지로 만든 창업펀드이다. 2014년 9월 ‘송현 인베스트먼트’와 스타트업 펀드 50원을 조성하였고, 매월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다 확충된 기술창업 인프라

한양대학교의 ‘한양 테크벤처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진행되는 기존 대학 벤처 지원프로그램과 달리 전공이 다른 학생들을 팀으로 편성해, 기

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알리는 것에까지 7개월 이상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면서 창업까지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학생과 초기기업의 기술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시 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최우선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특허기술을 무상이전 하는 협약을 2014년에 51명이 체결하며 순항 중이다.

대학기술 이전으로 만든 기술창업 지원성과의 대표적인 예로 김희울 교수의 '020기반 야구궤적 추적기술'을 이전받아 설립된 대학기술지주 자회사인 '㈜버추얼무브먼트', 이현규 교수의 '산화 귀리 베타-글루칸을 용도에 따라 임의로 산화율을 결정하는 제조방법 및 관련기술'을 이전받아 대학기술지주사 자회사로 편입한 '㈜유진바이오텍', 김희울·송시몬 교수와 기술개발 공동과제를 수행하여 기술이전을 통해 휴대용 정수필터와 정수기를 개발한 '㈜티크로스'가 있다.

CES2016 참가



더욱 활발해진 글로벌 창업지원 및 인재 육성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는 국내 대학 최초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뉴욕, 중국 상하이에 현지 사무소를 열었다. 현지 사무소는 대학(원)생들의 글로벌 취업·창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 중이다.

2014년 2월에 KOTRA 실리콘밸리 IT센터, 스톰벤처스 등 현지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피칭 및 네트워킹을, 2015년 1월에는 실리콘밸리 현지의 유망 스타트업과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2014년 12월에서 2015년 2월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18명의 학생이 참여한 글로벌 창업 인턴십을 운영하였다. 또한 CES2016(2016년 1월 6일~9일)에 국내 대학 최초로 '한양스타트업관'을 설치, 운영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혁신 제품을 전시하고 해외 바이어 및 글로벌 엔젤 투자자로부터 제품 구매 및 투자 등 리브콜을 연이어 받았다.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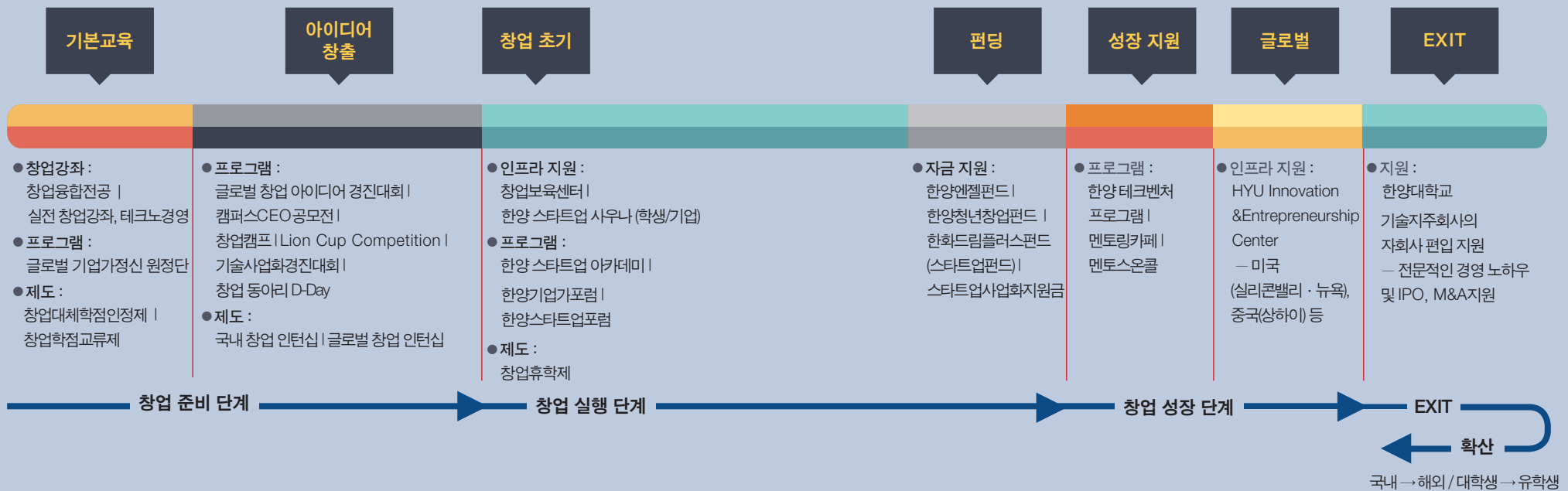
창업전공 유학생 유치

2014년 12월 이후로 산업체 수요 맞춤형 창의융합 인재 육성과 성공적 창업기회 제공을 위해 창업융합전공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중국인 유학생과 대학생 간 공동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 8월에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전공학생을 1차로 15명을 선발·유

치하였다. 2016년 3월에도 15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등 창업전공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more info

한양대학교 사례로 보는 전주기형 창업지원 체계 설계 (글로벌기업가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전초기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가 글로벌기업가센터를 열며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은 대학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대학을 창업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창업 아이디어 발굴 시점부터 창업 역량을 개발하는 기본교육, 창업실행 시 적시 창업지원, 창업 후 사후관리까지 '일원화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경력개발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의 창의인재 양성기관인 '한양인재개발원'을 국내대학 최초로 설립 운영 중이다. 특히 한양인재개발원으로 통합된 커리어 개발, HELP(한양리더십센터), HY-WEP(현장실습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학생 경력개발 시스템인 '미래형 창의인재 경영 시스템(HY-CDP: Hanyang 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구현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전문화된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조직간 협업을 통해 하나의 포털에서 10만여 개의 기업DB와 채용정보, 1만 개가 넘는 스마트러닝, 직무역량검사까지 학생들의 경력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스타트업 사우나

전문성을 극대화한 전담인력 확보

대학 내 창업문화 활성화 및 학생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전담 교원 및 창업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 기업인 출신으로 총 21명(전임교원 1명, 산중교수 2명, 연구교수 1명, 특임교수 12명, 겸임교수 3명)을 기업가센터 소속 전담 교수로 임용하였다.

2013년 1월에 대학 교원인사제도 확충에 창업기업 지도 및 배출 등을 교원산학협력 실적으로 반영하였고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보육매니저, 기술평가사, 창업지도사 등 15명(정규직 4명, 무기계약 1명, 프로젝트 계약 10명)을 비롯하여 기타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창업컨설팅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직원으로 두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창업교육 전담교원 중 창업지원 등 산학협력 실적이



멘토링 현장

우수한 교원에 한해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 연봉제 도입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했으며 산학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동문기업 간 강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업현장 경험이 축적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업자문단·멘토 그룹을 구성하여 2010년부터 매년 70여 명이 강의,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자문단은 20명으로 김효준 대표(BMW코리아), 이영규 회장(엘크론), 김장중 대표(이스트소프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명의 멘토 그룹은 유현오 대표(제닉), 양형남 대표(에듀월), 나학록 대표(씨유메디칼) 등으로 구성되었다.

멘토링 활동은 멘토링카페와 멘토스온콜Mentor's on Call로 나뉜다.

멘토링카페의 멘토단은 CEO 멘토 4~5명으로 구성되며, 각각 20~30명의 멘티를 배정하여 집단 멘토링을 진행한다.

멘토스온콜은 1:1 맞춤형 실시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멘토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멘티와 공유하며 멘티에게 초기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도전정신과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성과를 내고 있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학생 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학사일정, 학점이수 불이익 등을 보완하기 위해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학점교류제를 통해 학업과 창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한양대 재학생 28명, 타 대학 재학생 7명이 수혜를 받았다.

창업휴학제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2년으로 한정된 일반 휴학과 별도로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창업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창업휴학제를 2014년 8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도 2학기에는 2명, 2015년도에는 9명이 창업휴학제를 활용하였다.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 동아리 활동과 창업 준비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제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실습은 한 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이수 가능하며, 2015년도 2학기 정규강좌로 개설되어 창업 동아리 12명이 수강하였다. 창업현장실습제로는 최대 18학점 인정이 가능하며 2015년도 1, 2 학기와 계절학기 동안 총 5명이 제도를 활용하였다.

창업학점교류제

타 대학과 학점교류제를 통해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수강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로 2013년 2학기부터 총 7명(2013년도 2학기: 4명, 2014년도 2학기: 3명)의 타 대학 재학생이 한양대학교 창업강좌를 수강하였다.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창업강좌 수강 및 창업 동아리 활동 등을 바탕으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혜택을 활용하여, 2013년 7명, 2014년 24명, 2015년 20명의 학생이 성공적으로 창업하였다.



기업가정신을 트레이닝하는 창업교육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 학과에 걸쳐 창업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공대생의 경우 모든 학생이 기업가정신 강좌를 필수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갖춘 테크노리더로 육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개설된 창업강좌 수와 수강생은 2013년에 51개 강좌에 8,610명이 수강하였고, 2014년에는 53개 강좌에 8,759명 수강, 2015년에는 55개 강좌에 8,800명 수강을 예상된다.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기존 학과·전공의 커리큘럼이 창업강좌와 융합하여 만들어진 창업 융합전공을 제2전공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창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39학점 이상 이수 시 학위를 부여하며 다양한 학과 출신의 참여와 외국 유학생 참여 유도로 융합, 글로벌 창업 기획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공 신청 학생 전원에게 해외 창업 인턴십을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 창



창업융합전공 모집 설명회

업 활동비, 창업 시 시제품 제작비, 특허 출원비, 법인설립비를 지원하는 등 수장자 혜택도 운영하고 있다.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창업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고 있으며, 2015년에는 창업에 관심 있는 창업전공 유학생을 해외 현지에서 직접 면접 심사를 거쳐 30명 모집하였다.

캡스톤디자인 정규 과목화

2015년 1학기 창업강좌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공과대학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학과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목화하였으며, '창업실습: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통해 12개 아이টে을 지원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테크노 경영학 CEO 캠프

국제공인 TRIZ교육

'한양 트리즈센터'는 국내 대학기관 최초로 TRIZ 국제공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전문 교육센터로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Ideation) 및 실행능력(Implementation) 강화를 교육목표로 한다. 인문사회계 20%, 이공계 80% 비율로 팀을 구성하여 융합과제를 진행하면서 21개 과제를 통해 90개의 아이디어를 도출하였고, 7개의 신규 특허 출원을 발굴했다.

공대생의 필수 창업강좌, 테크노 경영학

한양대학교는 공대생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경영 감각을 길러주는 '테크노 경영학' 수업 수업을 의무화했다. 이 수업을 통해 경영 감각을 갖춘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나아가 엔지니어가 기술 창업을 할 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공학을 기본으로 한 창업 경험을 제공한

다. 팀 당 10만 원의 현금 제공으로 실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구매, 판매, 마케팅, 재무를 실습하는 국내 최초의 공대 필수 '캐시 클래스'로 운영된다. 공과대학 외의 학생들은 부전공(창업융합전공) 선택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2007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다.

거꾸로 교육을 도입 · 운영

기존 주입식 강의식 교육 방식을 개선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해 학생에게 보다 효율적인 수업이 되게끔 유도하는 교육방식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온라인 강의 수강 후 오프라인 실습)을 도입하였다. 이론은 인터넷을 통해서, 교실수업 시간은 실제 창업 아이템 개발에 할애하여 창업실습 활동만을 진행하는 커리큘럼 형태를 국내 최초로 전면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종자돈 10만 원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라! 캐시클래스 도입

창업실습팀별 10만원 현금을 초기자본으로 지급하고 한 학기 동안 실제 창업 활동 영위 후 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창업실습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팀원 및 교수들 간의 협의를 거쳐 매 학기마다 100여 개의 사업 아이템이 나온다. 교수들이 1차 심사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10팀을 'CEO캠프'에서 발표하도록 하는데, 수익이 부진하더라도 과정에서 배울만한 점이 있다면 발표할 기회를 준다는 것도 이 수업의 특징이다.

또한 국내 대학 최초로 온라인 오픈마켓(한양장터) 운영을 통해 한양대 모든 학생은 자체 구축한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과 상거래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워크 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 수강생 전원이 특허 출원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전문성을 키워주는 산학연계형 창업교육

한양대학교는 산학연계형 창업교육을 통해 교외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창업 전문성을 실제 수업에 반영하고 있다. 독일계 ERP 전문회사인 SAP와는 디자인씽킹(문제해결 능력 교육)을, 금융기관 출연 재단인 D-Camp와는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실전교과)를, 한국경제신문사와는

한양대 테크노 경영학 수업 가보니...10만원으로 창업 아이디어 '가득'

지난달 19일 서울 행당동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에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몰렸다. 이 학교 테크노 경영학 수업에서 뽑힌 10팀이 창업 아이템을 겨루는 '테크노 경영학 CEO캠프' 행사를 보기 위해서였다. 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소리를 담는다는 뜻의 '소담 팀은 심장소리(심파)와 목소리(음파)를 이미지화 해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소담 팀 발표를 맡은 김초림 씨(24)는 "전공(생체공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다"며 "앞으로 '타오바오' 등 중국 인터넷 사이트로 판매망을 확대하고 시그니처(물건에 자신의 서명 등을 넣는 것)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담 팀은 이번 학기동안 27만4000원의 수익을 거둬 투자 자본금(5만 6000원) 대비 489%의 수익률(ROI)을 올렸다.

〈한국경제신문〉 2015/07/12

국내 대학 최초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일반인 대상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고취에서 투자 연계까지,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Start-up Academy)에서는 재학생과 졸업동문 등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기업가를 대상으로 단기 집중 교육을 통해 창업의 기본적 이해, 창업절차와 법인설립에서부터 사업타당성 분석, 자본조달 및 투자유치,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계획서 작성·최신 마케팅 기법 등 사업 모델 개발, 세무와 인사관리 등 창업 실무, HR, 멘토링 등의 광범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서울 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기회, 정부

SAP와 개최한 디자인씽킹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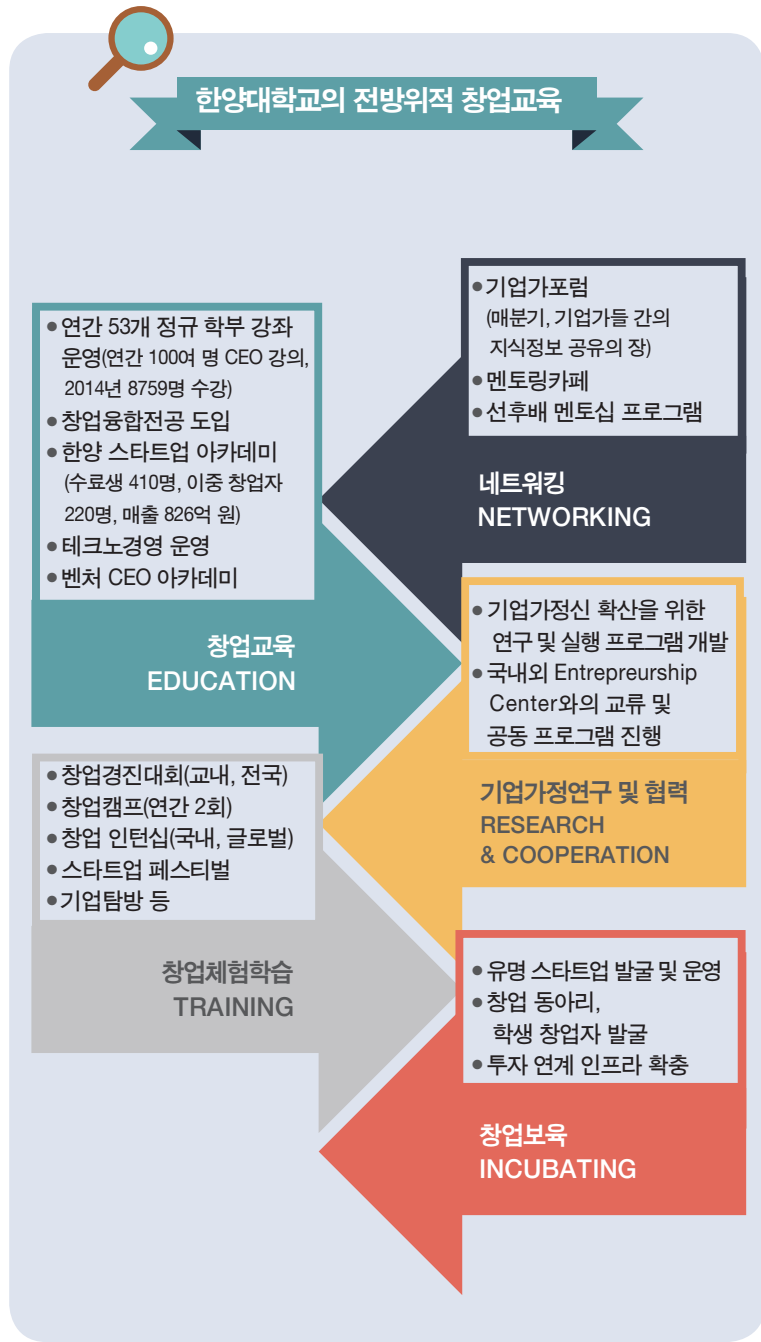
창업지원사업·기술지주회사·투자유치 연계, 인사·세무·마케팅 등 경영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특히 창업지원 못지 않게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지원이 눈에 띈다. 이는 일원화된 선순환 구조의 창업보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한양대의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과 무관치 않다.

아카데미에 참여할 교육생들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또한 제휴 캐피탈, 한양엔젤펀드 등을 통한 창업자금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한양대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에도 무료 참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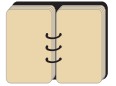
현재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 출신은 33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의 회사 매출이 연간 400여억 원을 넘어섰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아카데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늘고 있는 중이다.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





기업가 DNA를 깨우는 다양한 창업 촉진 교육 프로그램



한양대학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 공동창업공간 등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창업 동아리를 발굴하여 대학생 창업도전 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창업 동아리 수는 2013년에 13개 동아리에 132명에서 2014년에 30개 동아리에 246명으로 2015년에는 50여 개 동아리에 370명에 달한다.

또한 2009년부터 실전창업을 위한 혁신적이고 다양한 경진대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 및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또한 창업 캠프, 창업 인턴십 및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캠퍼스 내 창업 문화를 전파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IT 컨버전스와 에너지 기술을 이끄는 국내 최고의 실용학풍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의·융합형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창업을 돕는 데도 적극적이다.

실전체험 트레이닝! 창업 경진대회

2013년부터 유학생 창업 동아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52개의 창업 동아리(363명)모임이 만들어졌고, 32개 팀이 창업하였으며, 고용인원은 177명, 2014년 매출은 10억5천7백만 원을 달성하였다.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업, 공동구매가 가능한 한양 청년창업조합을 결성하였으며, 각종 경진대회, 국내외 창업 캠프, 기업-재학생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동문 선배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트레이닝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동문 선배와 재학생이 함께 창업에 도전하여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라이온컵 경진대회,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캠퍼스 CEO 경진대회 등 다양한 창업 경진대회 운영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33개 사의 창업자를 배출하였다.

라이온컵 경진대회

재학생과 졸업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라이온컵 경진대회(Lion Cup Competition)’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재학생과 동문 졸업생이 한 팀을 이루어 공동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자리로, 학생 창업자의 부족한 현장경험을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이 보완하여 혁신적인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창업에 이르게 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학생/졸업생 378명이 참가하여 아이디어 제출부터 최종 결선까지 약 3개월간 멘토 12명, 심사위원 13명의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6팀을 선발하였으며 총 상금 규모는 1억 원(창업지원금 7,400만 원 +

부상 2,600만 원)이었다.

캠퍼스 CEO 경진대회

미래 혁신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캠퍼스 CEO 창업강좌를 개설, 1인 1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학기 중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제품 제작에서 마케팅까지 실습으로 진행되는 경진대회이다. 매 학기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총 5회에 걸쳐, 446명이 참여하였다. 우수 수상 팀에게는 학생 공동 창업실을 제공하며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

라이온컵 경진대회



전국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 프로세스를 교육시키고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90개 대학의 560개 팀으로 총 1,255명이 참여하였고, 2014년 98개 대학 665팀 1,534명이 참여하였다.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2014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창업을 준비하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체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1:1 심층면접 등을 통해 290여 명의 우수한 창업인력을 배출하였다.

스타트업 체험하는 캠프와 인턴십 프로그램

‘기업가 캠프’는 연 2회, 1박 2일 동안 진행하며 교수 4명, 멘토 11명, 선배CEO 32명과 참가자 79명이 창업 및 사업화 멘토링, 기업경영 노하우 공유, 공동창업기회 발굴 및 네트워킹 등의 활동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캠프’는 연 1회 진행하며 교수 3명, 특강사 1명과 참가자 85명이 함께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설계 실습 및 멘토링을 진행하여 창업의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2013년 9월에 진행된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미국 카우프만재단과 함께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유망 스타트업 및 글로벌 기업을 탐방하였고, 현지 기업인들과 네트워킹 및 멘토링을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창업 의지와 도전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교수 2명, 학생 18명이 참가하여 스텐포드 대학 D.School 방문 및 특강,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현지 스타트업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외에 해외 창업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 18명이 참여하여 중국인 유학생과 대학생이 팀을 결성하여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6주간 ‘상하이에서 대박 아이템 찾기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실제 창업에 성공한 동문 기업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인 기업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운영을 시작한 2014년에만 10개사 60여 명의 재학생과 동문이 참여하여 우수스타트업 간담회, 한양스타트업 포럼, 창업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실리콘밸리, 뉴욕, 중국 상하이 등에 기업가센터 사무소를 개소하여 2015년 한 해 36명의 학생이 현지 인턴, 연수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 기회를 모색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한양대 동문, 한국인 엔지니어, CEO를 포함한 글로벌 창업 멘토 10여 명을 위촉하였고, 상하이 해외 인턴 활동을 통해 18명이 상하이 현지에서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대학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한양대가 위치한 성동구 지역의 기업 직원 842명을 대상으로 IT, 소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고 벤처기업 11개와 공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창업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기업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부상조하는 창업교육

성동구 소재 유망 스타트업 및 교내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2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하며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용해 보고 구체적인 창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창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에 39명, 2015년에는 22명이 참여하여 운영하였다.

지역기업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3년간 성동구 지역의 (주)아이크스토리를 포함한 1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8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드로이드, 모바일 SW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을 주제로 총 842명이 수료하였고, 평균 93.3점의 높은 교육 만족도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수드림SSDream포럼은 2015년 1월에 서울 성동지역 벤처기업 협의회 11개 기업과 한양대가 구성한 포럼이다. 중소기업 창업과 기술 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준 530개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기술개발/이전, 산학공동연구, 공용장비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성동구 소재 덕수고교 창업 동아리 등과 스타트업 기업탐방 및 3D프린팅을 통한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대주택, 도전숙

한양대학교는 2016년부터 성동구와 함께 창업자, 예비 창업자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저렴한 직주혼합형 원룸식 공공임대주택인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 도전숙(宿)을 용답동에 운영할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1인 창조기업인 및 창업준비생들이 주 입주대상이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동구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창조기업(예비) 창업자들을 우선 선정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5천만 원 달성 시에 임대계약을 만료하여, 창업자들에게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전숙은 전용면적 26~46㎡ 규모의 원룸 26개와 회의실 2개로 구성된다. 각 룸마다 싱크대, 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고 회의실에는 빔 프로젝터, 사무기기, 회의탁자, 의자 등이 비치돼 사무 및 회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업 구상 및 다른 창업자들과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커뮤니티 사무공간이자 주거공간이다.

창업교육 현장을 가다 4

대학 창업교육으로 학생 창업의 기초를 다지다

박계환 씨(건축공학과 3학년)는 글로벌기업가센터를 통해 2014년 10월부터 창업을 준비, 2015년 1월에 '청년마케터'(현 ㈜청년)를 설립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청년마케터의 경력은 화려하다. SBA캠퍼스 왕중왕전 대상을 차지하고 창업 1개월 만에 매출액 2천만 원을 달성했다.

처음부터 그가 창업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스물네 살에 두 번의 창업에 실패한 이후 미국유학을 준비하던 중 글로벌기업가센터 류창완 센터장의 권유로 유학을 접고 선택한 세 번째 창업이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다.

“학교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생 창업 초기에는 학교의 물리적 지원뿐 아니라 심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두 번의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과 관련해 사람들을 만나면 기회인지 함정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학교에서는 조건 없이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원 씨(신소재공학부 4학년) 역시 재학 중 창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2년 개인사업으로 시작해 2014년 7월에는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직장 내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온라인 서비스 '오피스엔'을 운영



하며 지금까지 지금까지 누적 1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올해는 다른 10명의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CES 2016 유레카 존에 독립부스를 차려 참여하였다.

“처음 1년여는 학교의 도움으로 사무실을 구할 수 있었고 이후 독립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별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례로, 공대생이라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스타트업 아카데미에 1기로 참여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지식을 배울 수 있었어요.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통해 사업이 무엇이고 창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래 사업을 할 텐데 대학 창업교육이 그 초석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든든한 미래 자산, 개인 역량을 키워주는 창업교육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 류창완 센터장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는 국내 대학 최초의 창업지원센터라는 것 외에도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운영 및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창업과 경영 경험을 가진 동문들이 자금과 운영 등 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동문으로서 데이콤 사내 벤처로 시작한 전자결제기업 '사이버패스'를 성공적으로 창업한 바 있는 류창완 센터장을 만나보았다.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창업을 꿈꾸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 교육이라는 편견도 있습니다. <테크노 경영학>(공과대학 필수 창업교육 과목) 등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학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업교육의 기본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 모두가 예비 창업자라는 대전제 하에 창업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알아야 할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창업을 위한 스킬을 대학 시절 일찌감치 배워두면 그것이 미래에 큰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있었고, 평균 수명도 짧아 은퇴 후 노후 생활이라 봤자 길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앞으로 짧은 세대는 일생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창업이라는 선택지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실무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금 조달, 팀 빌딩, 세무 등 실무를 한 번이라도 배워본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창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태도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미래를 예비하는 훌륭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미래자산과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또한 대학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글로벌기업가센터는 '스타트업 라운지'를 표방하며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교육 대상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말씀드렸듯이 기본은 재학생입니다. 그러나 창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비단 재학생만이 아니기에 졸업생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조금만 수고를 더하면, 지금과 같은 창업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동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방된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입니다. 70년대 학번부터 최근 학번까지 실로 다양한 동문들이 참여하여 역량을 키우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온라인 교

육도 개방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라운지 홈페이지는 간단한 가입을 통해 누구나 사업모델을 평가받고 창업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창업교육의 목표, 비전은 무엇입니까?

— 미국은 대학 평가 시 ‘그 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을 올렸나’를 랭킹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는 고위행정직 배출 숫자를 위주로 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느낄 점이 많습니다. 국가의 진정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람은 가정도, 주말도 포기하고 사업에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대학이 진짜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출신의 기업가들이 일으키는 매출이 우리나라 GDP의 10.8%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은 미국 GDP의 15%를 만들어 냅니다. 하나의 대학이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특히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기술창업자를 최소 3만 명 이상 양성하여 그들이 대한민국 GDP의 15%에 달하는 매출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나무를 잘 키워야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창업하지 않더라도, 졸업생이 사회 진출 후 몇 년차 이상이 되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창업했을 때 필요한 역량을 갖춰주려 합니다.

대학 창업교육에 바란다

개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창업교육

SNS에너지 김찬호 대표는 “왜 사업가를 위한 아카데미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예비 창업자들이 사업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업가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강좌가 있어서 창업계획과 실제 운영과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편, 취업 면에서 창업교육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의문을 표했다. “사업계획서, 재무분석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물론 환영입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창업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수박 겉핥기 식 경험만으로 경영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가 마인드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을 무작정 창업으로 이끄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푸른밤 김진용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창업은 환상이 아닙니다. 성공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보다는, 잘 실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더 효용이 높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창업교육과정을 거쳐 창업한 한성원 씨는 “저는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 1기 출신입니다. 수료생 중 실제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지만, 나머지 90%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에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본 경험 자체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

— 2016 대학 창업교육 간담회 중에서

해외 창업교육 우수사례

프랑스 : 에콜 42(Ecole 42)

영국 : 옥시존 액셀러레이터(Oxygen Accelerator)

이스라엘 : 정션(The Junction)

뉴질랜드 : 스파크(The Spark)

인도네시아 : 발리(Bali)

05

창업교육, 해외 사례에 길을 묻다



Ecole 42

에콜 42

 www.42.fr

2016 CES는 가히 프랑스 스타트업의 '침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총 200여 곳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그 중 128개 스타트업이 유레카파크(스타트업 전용 섹션)에 진출해 전체 스타트업의 30%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기업 주도의 스타트업 인재 육성사업이 큰 기여를 했다. 프랑스 정부는 프렌치 테크(French Tech)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매년 1,500만 유로(187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속 기업들을 위해 투자 및 협업을 연결해준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매년 42만 개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 또한 안정적 직장보다는 스타트업에 더 몰리는 경향이다. 파리 17구에 위치한 에콜 42는 IT전문 기술창업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졸업생들은 IT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세계적 IT기업에 채용된다.

42



세계 최고 IT 스타트업 사관학교를 꿈꾼다

에콜 42 Ecole 42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IT창업가로서 프랑스 통신회사 프리Free의 자비에르 니엘Xavier Niel 회장이 스타트업 인재양성을 위해 2013년 3월 설립한 민간 스타트업 육성기관이다. 매해 1,000명의 IT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제2의 구글·페이스북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웹 기술 전문학교인 에피테크 운영진과 함께 학교 운영체제와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학비는 100% 무상으로 만18~30세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학교 졸업장이나 성적은 필요 없다. 입학생 중 40%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인 반면 MIT, 스탠포드 등 명문대학 출신들도 있다. 학벌보다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우선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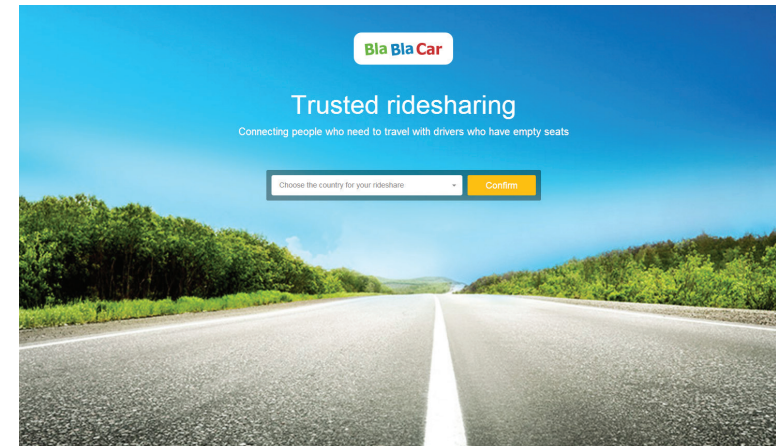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입학 후보자를 선별하며, 후보자들은 피썬La Piscine이라 불리는 서버이벌형 코딩 테스트를 한 달 치르게 된다. 매해

두 번 1,700여 명을 선발하는데 1년 만에 7만 명이 지원했다. 피션 과정에서는 후보생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과 독립심, 동료 간의 협동심 등을 갖춘 예비 창업자를 가려내고 이를 통해 최종입학이 결정된다. 입학 후에는 3년간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며, 학위는 주어지지 않는다.

교재도, 교수도, 수업도 없다

에콜 42에는 교수도, 교재도, 이론 수업도 없다. 피어투피어Peer to Peer 교수법으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부여하고 결과물에 대한 상업성을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한다. 학생들은 교수의 지도 없이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협업을 통해 해결해내야 한다. 철저히 팀 위주의 프로젝트 작업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학교는 365일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합숙하



에콜42가 배출한 스타트업 <블라블라카> 홈페이지

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IT 스타트업 인재의 산실

설립 1년 만에 11개의 스타트업이 배출되었는데, 그중 디지털 사진 관련 스타트업 포토리아Fotolia는 미국 어도비시스템에 8억 8,000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카풀 서비스 업체인 블라블라카BlaBlaCar는 총 3억 1,2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기업가치는 이미 15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창업하지 않은 졸업생들은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스 등 세계적 IT 기업들에 전원 채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스탠포드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프랑스 예비 창업가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Oxygen Accelerator

옥시즌 엑셀러레이터

 www.oxygenaccelerator.com

영국 정부는 2011 성장계획(The Plan for Growth)의 4대 핵심정책 중 하나로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기업투자제도와 창업가 감면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영국 최대의 독립적 비영리 창업지원 기관인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국립과학기술예산재단)를 통해 '스타트업 팩토리(Startup Factory)' 로 불리는 민간 주도로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버밍엄에 위치한 옥시즌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 팩토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 지원율은 6% 이상이다.



기술 창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엑셀러레이터

2011년 설립된 옥시즌 엑셀러레이터Oxygen Accelerator는 세계 변화와 대륙 간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교육은 13주간 이루어지며 경험 있는 멘토의 지도 아래 창업 부트캠프가 진행된다. 부트캠프에 참여하는 팀은 팀당 21,000파운드의 투자자금을 받으며, 150명의 멘토 및 전문가 팀에 의한 상시지원을 받는다. 또한 엔젤 서포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기업에서 선별한 투자자들 앞에서 데모데이를 가진다.

3단계로 이루어진 총 13주간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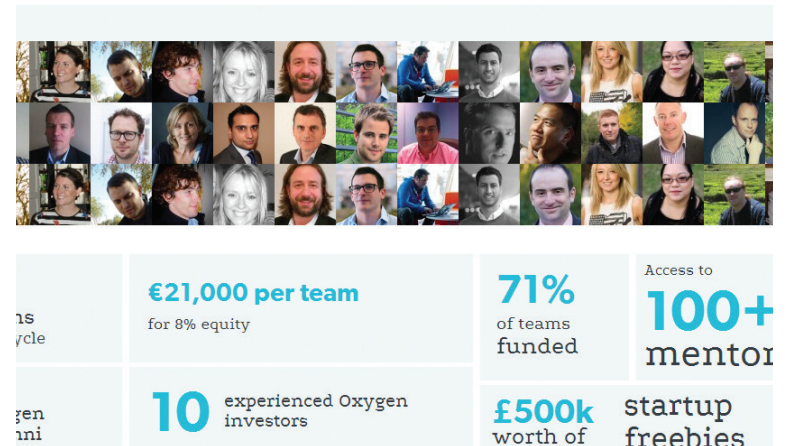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다음의 3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 Discover & Build : 첫째 주에 매일 10명 이상의 멘토들을 만나서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과 명확한 제안서를 확립하는 시간을 가진다.
- Validate & Build : 제품과 고객 흥미유발을 위한 단계로, 멘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제휴 또는 동업을 진행하고 제품을 판매할 기회를 가진다.
- Invest & Grow : 앞의 단계를 종합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변호사, 세일즈 트레이너,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아 피치를 준비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위한 데모데이는 엔젤투자자, 사모펀드, 벤처 자본가 앞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처음 2주간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기본 교육을 받고 이후 3~4주차에는 150여 명의 멘토로부터 집중 멘토링을 받는다. 이후 제품 생산 및 세일즈, 투자, 사업계획 등을 거쳐 마지막 2주간은 피치에 집중한다. 현재까지 총 5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31개의 스타트업을 양성하였고 그 중 71%가 펀딩을 제공받았다.

제공되는 활동

- Mentor Days : 150명의 멘토가 있으며 일대일 상담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5명에서 10명까지의 멘토를 만나볼 수 있다.
- Build days : 멘토링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보완한다.
- Board Meetings : 2주에 한 번씩 Oxygen팀과의 미팅을 통해 직면



옥시젠 엑셀러레이터 홈페이지

한 문제들과 기업에 관한 객관적인 견해를 들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며,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감안하여 다음 미팅까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준다.

- One-to-one support and Office hours : 문제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준다
- Expert Sessions : 린 스타트업, 콜드콜링 cold calling, 관련법률, 피치 기술, UX & UI 등의 주제로 강연을 제공한다.
- Drop in sessions : PR, 법률, HR, 마케팅, 금융 등의 주제와 관련해 각각 다른 전문가와의 상담이 진행된다.
- Founder stories :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마친 스타트업의 경영자를 초대하여 강연을 제공한다.
- Entrepreneur Therapy : CEOs, CTOs & CMOs를 위한 한 시간 세션으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

The Junction

정선

 thejunction.co.il

이스라엘은 국민 1인당 하이테크 기업 창업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열악한 지리적, 군사·정치적 환경에서, 창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스라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벤처기업들은 국가 GDP의 약 30%를 생산하며, 특히 생명공학 분야는 전체 기업 중 41%가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일 정도로 창업이 활발하다. 2011년 출범한 정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엑셀러레이터 중 하나이다.

thejunction

By GENESIS PARTNERS

창업 강국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양성소

이스라엘의 경제도시 텔아비브에 위치한 정선The Junction은 2011년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 기업인 제네시스 파트너즈Genesis Partners에 의해 출범하였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가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이 그들의 아이템을 사업화하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도록 돕는다.

창업지원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창의적 스타트업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맥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Pay-it-forward 엑셀러레이션 모델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창업 혁신 엔진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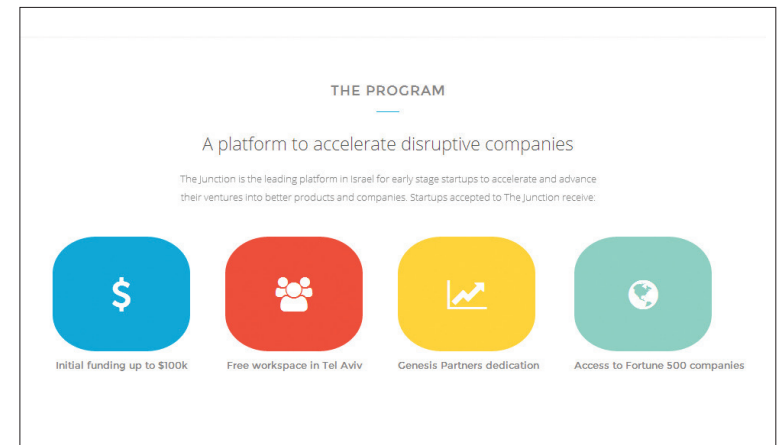


선순환을 유도하는페이-잇-포워드 시스템

정선의 기본 프로그램은 3개월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마다 평균적으로 8개의 새로운 기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교육기간의 10%를 다른 팀을 위해 할애해야 하며, 창업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 가운데 20개 스타트업이 선별되어 2일짜리 창업가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4-6개 기업만이 6개월 프로그램에 초대받게 된다. 정선을 졸업한 스타트업은 제네시스 파트너즈의 투자 경쟁대회인 줄라이 웨이브 July wave에 신청할 수 있다.

창업자 캠프와 6개월 프로그램

창업자 캠프 Founders camp에서는 제네시스 파트너즈의 지원을 받아 법인 파트너와 VC, 엔젤 투자자들, 분야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다. 참



정선 홈페이지

여 기업들은 피치, 기업제휴, 제품개발, 기술지도, 사업전략 수립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다.

한편 6개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창의성과 생산성, 혁신성을 높이는 교육을 받는다. UX/UI, 테크놀로지컬 백엔드, 마케팅, 세일즈, 디자인, 사업 전략, 세무, 금융 등에 관한 교육과 함께 기업 연계, 선배 기업가들과 자문위원회 등 분야 전문가들의 멘토링, 투자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정선이 구축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지금까지 5,900명 이상의 커뮤니티 멤버들이 110회 이상의 만남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데모데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와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112개의 스타트업이 13기의 웨이브 wave를 거쳐갔으며, 53개 기업은 펀딩에 성공하였고, 3개 기업은 엑시트 exit에 성공하였다.

The Spark

스파크

 www.spark.auckland.ac.nz

오클랜드 대학교는 뉴질랜드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오클랜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은 비즈니스 경영연합(AACSB), EQUIS, AMBA에 의해 공인된 뉴질랜드 유일의 대학이다. 오클랜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은 상업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학부에서 박사 과정까지 전 레벨에 걸쳐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혁신성과 상업성을 높일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도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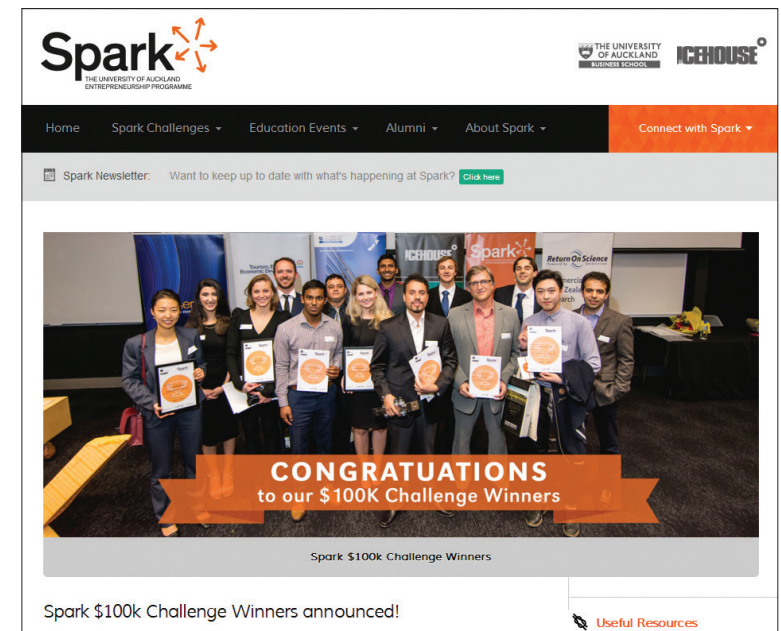
Spark
THE UNIVERSITY OF AUCKLAND
ENTREPRENEURSHIP PROGRAMME

오클랜드 대학교가 만든 창업 사관학교

스파크SPARK는 오클랜드 대학교 비즈니스스쿨에 의해 2003년 출범하였다. 성공률이 높은 창업 역량 함양 프로그램과 사업계획 경연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혁신적인 아이템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상업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창업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스쿨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 학생들에게도 열려 있다. 아래와 같은 스파크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양한 초청인사의 강의와 심사,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스파크 홈페이지



Spark
THE UNIVERSITY OF AUCKLAND
ENTREPRENEURSHIP PROGRAMME

THE UNIVERSITY OF AUCKLAND
ICEHOUSE

Home Spark Challenges Education Events Alumni About Spark Connect with Spark

Spark Newsletter: Want to keep up to date with what's happening at Spark? [Click here](#)

CONGRATULATIONS
to our \$100K Challenge Winners

Spark \$100k Challenge Winners

Spark \$100k Challenge Winners announced!

[Useful Resources](#)



스파크 홈페이지

교류 플랫폼에서 실전 창업까지

- 스파크 런치 Spark Launch : 매년 새해 개최되어 한 해 동안 지속되는 교류 플랫폼으로, 다른 예비 창업자들과 성공한 벤처 사업가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 V2B Vision 2 Business : 5가지 세션의 교외 교육 코스로 구성되며, 매년 3월 중순에서 5월 초순까지 진행된다. 아이디어를 상업적으로 보다 확실히 준비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로서 발전시킬 영감과 자원을 제공한다.
- 혁신가 시리즈 Innovator Series : 여러 대학의 학사제도 간 교류로 이루어지는 이 세션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관한 시야를 넓혀줄 다양한 연사가 초청된다.
- 스파크 아이디어 챌린지 Spark Ideas Challenge : 스파크의 다양한 연중 행사의 하나이다. 참가자는 자신의 기업가적 면모를 1,000자 이내



(3페이지가량)로 설명하고, 우승할 경우 3만 불 이상의 현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뉴질랜드 최고의 기업가들로부터 아이디어에 관한 다채로운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 I2B Idea to Business : I2B는 스파크의 원데이 스타트업 워크숍으로, 하루 동안의 집중 교육을 통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지역 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창업을 위한 핵심 노하우를 전수한다.
- 10만 달러 챌린지 \$100k Challenge :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사업계획 경진대회로, 우승자에게는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과 피드백이 제공되며 그 외에 비즈니스 워크숍, 일대일 IP 세션, 초기자본,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ali

발리

 www.hubud.org

 liv.it

대표적인 글로벌 휴양지 발리가 스타트업의 협업 공간(co-working space)으로 변신하고 있다. '신들의 섬'에서 휴양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익숙하고도 단조로운 업무 환경을 벗어나 영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체류비가 저렴하여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오늘도 일과 삶의 균형을 생각하는 디지털 노마드형 창업자들이 숲 속의 스타트업 협업공간, 우붓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깃어웨이 등으로 모이고 있다.



창의적인 협업공간, 후붓

발리의 대표적인 크리에이티브 허브로 꼽히는 후붓Hubud은 우붓의 허브Hub in Ubud라는 뜻으로, 원숭이숲으로 유명한 내륙 마을 우붓에 위치해 있다. 2003년 문을 연 이래 전 세계 64개국 3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후붓은 이들 창업자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도록 독려한다.

창업자들은 후붓에 머물며 각자 업무를 진행하거나 후붓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협업자들을 구한다. 매달 평균 30여 개의 무료 행사와 강의를 열리며, 한달 이용 비용은 사용하는 공간과 서비스에 따라 60~275달러 선이다.

후붓 홈페이지

Grab A Membership Today

What Do I Get?	Connect	Coworking			
	Community	Casual	In and Out	Pro	Unlimited
Working Hours per Month		25	50	100	Unlimited
Private Skype Booth ^	\$5 / hr	\$5 / hr	\$5 / hr	Included	Included
Meeting Room ^	\$10 / hr	\$10 / hr	\$10 / hr	Included	Included
Access to Events and Workshops	✓	✓	✓	✓	✓
Member Pricing on Paid Workshops	✓	✓	✓	✓	✓
Hubud Online Members Forum	✓	✓	✓	✓	✓
Included Access to Partner coworking Spaces*		2 days	2 days	5 days	5 days
Mailing Address			✓	✓	✓
Included Storage Locker				✓	✓
24/7 Access		✓	✓	✓	✓
Cost per Month** ^	\$25	\$60	\$110	\$195	\$275

* Current Partners Include Hub Singapore, HUB Melbourne, The Nest (Perth), the Centre for Social Innovation (Toronto & New York) and Hubba (Bangkok)
** Online PayPal transactions will attract a processing fee

^ If paying by cash, you will be charged the equivalent IDR Rupiah rate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리빗

리빗Livit은 발리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이다. 인도네시아와 덴마크, 홍콩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창업자들에게 창의성과 영감을 주는 공간, 사업 지식, 전문가 멘토를 제공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스타트업에 집중하고 있다. 협업공간인 스타트업 깃어웨이Startup Getaway와, 공동생활을 통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깃어웨이Project Getaway를 운영한다.

125개 국가에 진출한 인터넷카페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사 스마트 론치Smartlaunch, 윈도우를 위한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일버드Mailbird, 3D 실험실을 포함해 인터랙티브 과학 교육 툴을 개발하는 랍스터Labster, 발리의 숙박 시설을 연계해주는 사이트 빌론도Vilondo, 올인원 디자인 & 퍼블리싱 플랫폼 매그로프트MagLoft 등이 리빗의 생태계에 속해있는 스타트업들이다.



리빗 홈페이지

리빗의 스타트업 협업공간, 스타트업 깃어웨이

스타트업 깃어웨이는 발리의 중심도시인 덴파사르Denpasar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는 풀장 옆에서 미팅을 하고, 테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창업자들은 6개의 빌라에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1개월~연단위로 숙박하며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커뮤니티를 위한 카페 공간, 공동 사무 공간 및 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프로젝트 깃어웨이 참여자들에게 공동 생활과 협업 환경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프로젝트 깃어웨이는 리빗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및 기업가들을 위한 행사로, 1년에 한 번 전 세계에서 20명의 참가자를 선발하여 30일간 스타트업 깃어웨이에서의 공동생활할 기회를 제공한다.

2015 대학 창업교육 우수사례집

발행일 : 2016년 3월

발행처 : 교육부/한국연구재단/(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TEL : 044-203-6884 FAX : 044-203-6133, 6144

한국연구재단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산학협력지원팀

TEL : 042-869-6402 FAX : 042-869-6417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0659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202호 미래인재양성팀

TEL : 02-2156-2295 FAX : 02-2156-2290

- <2015 대학 창업교육 우수사례집>(PDF)은 edu.koef.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